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의 가족은 변화중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의 가족은 변화중

서울의 가족은 변화 중	비매품
	03330
9 791156 217022	
ISBN 979-11-5621-702-2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의
가족은
변화중

행복한 가족이 희망찬 서울을 만듭니다

서울시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서울에 사는 가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줄었습니다. 반면 홀로 사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조부모와 미혼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20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10년~20년 사이에 기러기 가족, 1인 가구, 조손가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언어는 사회의 변화를 오롯이 담아냅니다. 가족 구조가 변하고, 가족 관계가 변하고, 가족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평등과 유대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서울시 가족의 변화를 담은 ‘서울형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친밀한 가족소통을 배울 수 있는 ‘서울 가족학교’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의 가족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가족보고서의 발간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실태와 문제점 및 미래지향적 가족모델을 담았습니다. ‘희망 서울’, ‘행복 가족’을 만드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가족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 마디 더 건네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저도 서울시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겠습니다. 세계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이 희망찬 서울을 만듭니다. 또 희망찬 서울이 행복한 가족을 만듭니다. 서울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이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차 세계화·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형태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삼포 세대’, ‘N포 세대’가 등장하는 등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데는 ‘가화만사성’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견디며 살아온 전통적 가족 제도 및 가치관이 무너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 사회에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곧 도래할 100세 장수 시대에 대비하려면 가족끼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공감·위로·지지하면서,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해·고마워·사랑해’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차리는 밥상, 자녀들과 감사한 마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하며 서로 격려할 때 가족은 지친 삶을 견뎌내는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 되고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상담, 교육,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시 및 자치구에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15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매뉴얼 개발과 함께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건강 가정 아카데미’에 대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지역구 주민 및 각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생애 주기별 가족 토크 학교’, 자녀 인성 강화를 위한 ‘패밀리 셰프’,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이 확대되었고, 부모 교육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서울시민들의 가족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가족 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서울, 행복가족〉에는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그래도 늘 소중한다’, ‘엄마는 일하러 간다! 그런데 가정 살림과 돌봄은? 여전히 엄마가...’, ‘나 홀로 가구, 나도 가족이다!’, ‘다양한 가족, 해피 투게더!’, ‘길어진 부부만의 삶,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시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간사

박원순(서울특별시장)
계선자(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서울 가족은 지금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그래도 늘 소중한 가족

- 016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 018 여가에 혼자 TV 보는 일이 많다
- 020 그래도 항상 그리운 가족
- 023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가족과 공감·소통 가족참여프로그램 마련
- 027 **전문가 제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 028 **TALK** ‘패밀리 셰프’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간다!

그런데 가정 살림과 돌봄은? 여전히 엄마가...

- 032 엄마는 일하러 간다!
- 034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육아
- 038 아버지도 유모차 끌 시간이 필요하다!
- 043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여성의 가족원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가족 역할 확대를 지원
- 047 **전문가 제언** 맞벌이 가정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 049 **TALK**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 홀로 가구, 나도 가족이다!

- 054 서울시 나 홀로 가구의 증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057 1인 가구도 가족이다!
- 059 이웃, 동네, 지역사회가 가족이다
- 064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정책 설계와 제도 지원
- 066 **전문가 제언** 포괄적 가족 정책 측면에서 제도와 사업이 도출되어야 할 것
- 068 **TALK**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사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가족, 해피 투게더!

- 074 싱글 맘·싱글 대디, 혼자여도 당당하다
- 077 **한 부모 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취약 가족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 081 **전문가 TALK**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082 **엄마·아빠 자리를 대신한 할머니·할아버지**
- 085 **조손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조손 가족의 건강 증진과 유대감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펼쳐
- 087 다문화 가족, 편견 없이 살아가기
- 091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집 중
- 093 **전문가 제언**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095 **전문가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합니다
- 098 **TALK** ‘가족봉사단’ 통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합니다

길어진 부부만의 삶,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 102 길어진 노년, 부부 둘이 사는 기간이 늘어난다
- 107 100세 시대를 함께하는 부부
- 112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가족 교육
- 117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가족 관계 증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시행 중
- 122 **전문가 제언** 100세 시대,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 123 **전문가 TALK**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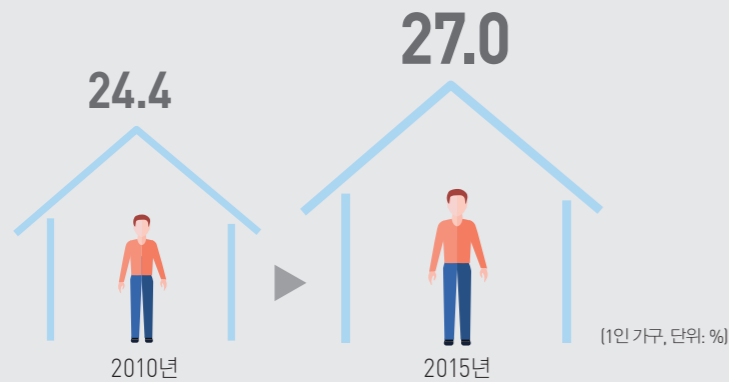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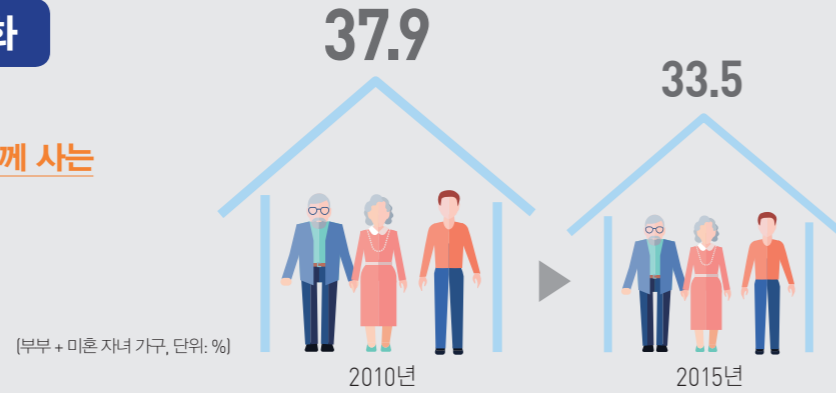
가족 정책 네트워트 서울시 지역 유관 기관 정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울타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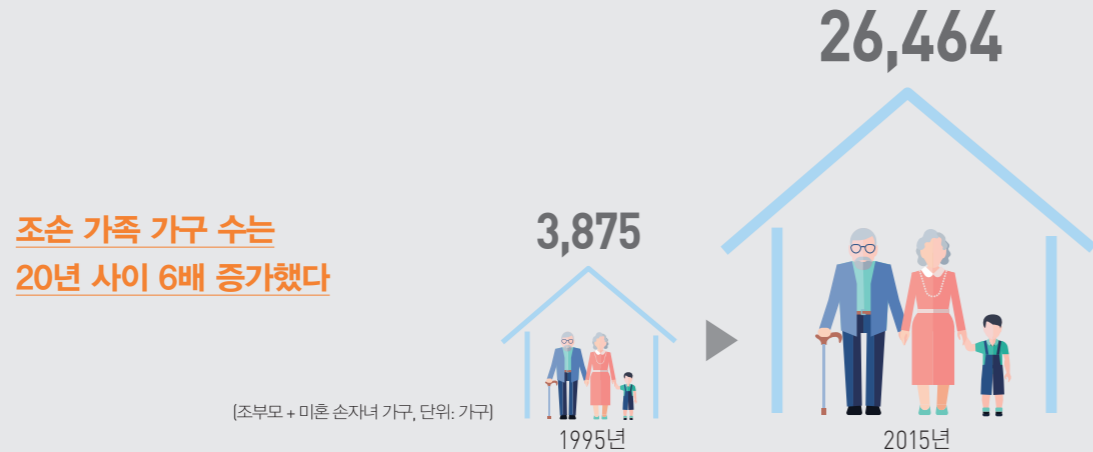
서울 가족은 지금

가족 구조의 변화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수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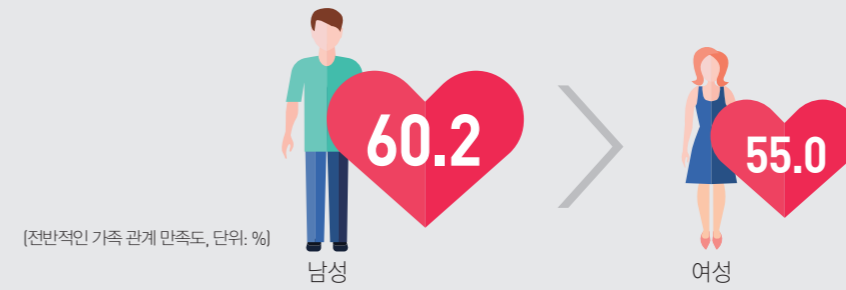
1인 가구 수는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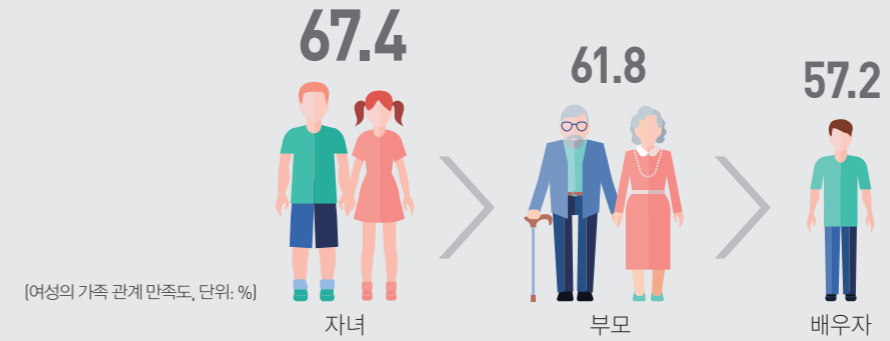
조손 가족 가구 수는
20년 사이 6배 증가했다

가족 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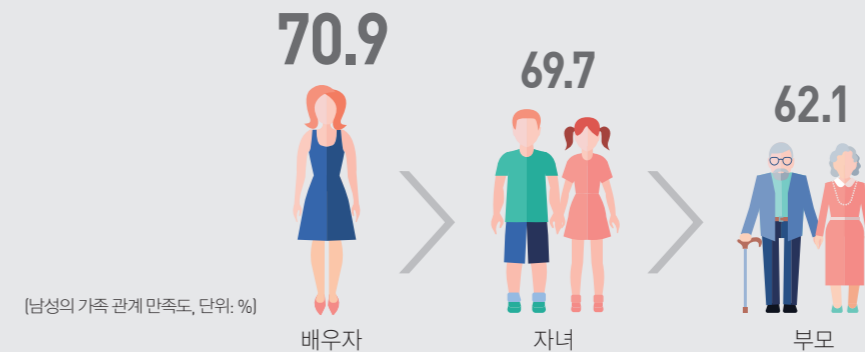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57.5%)이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했으며,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더 가족 관계에 만족했다 (2014년 13세 이상 조사)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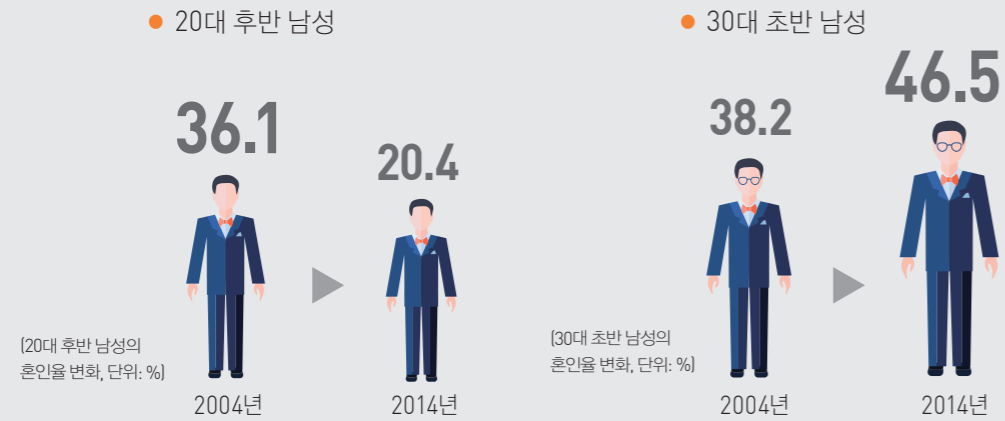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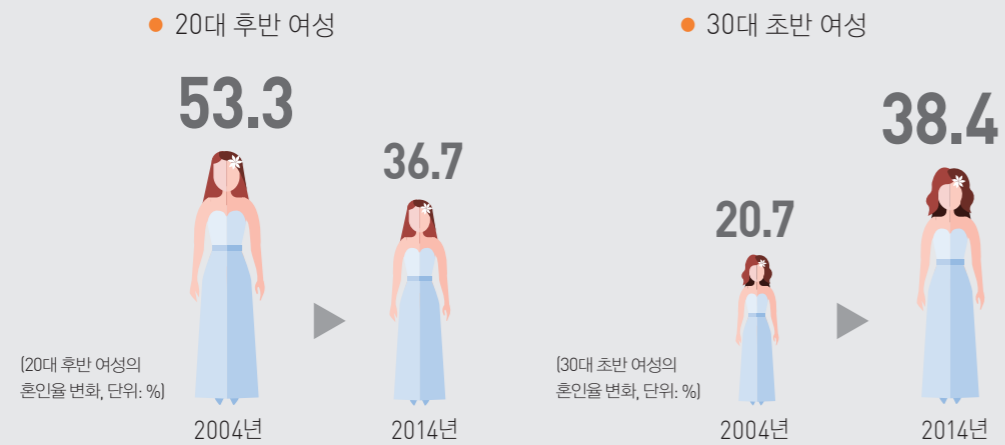


가족 형성의 변화

남성은 과거(2004년)와 현재(2014년) 모두 주로 30대 초반에 결혼한다



여성은 과거(2004년)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나, 최근(2014년)에는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



평균 초혼 연령은 10년(2004년→2014년) 사이 남성 1.9세, 여성 2.4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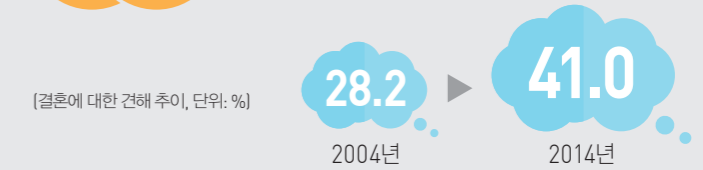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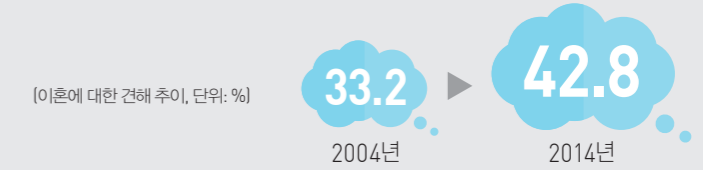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증가했다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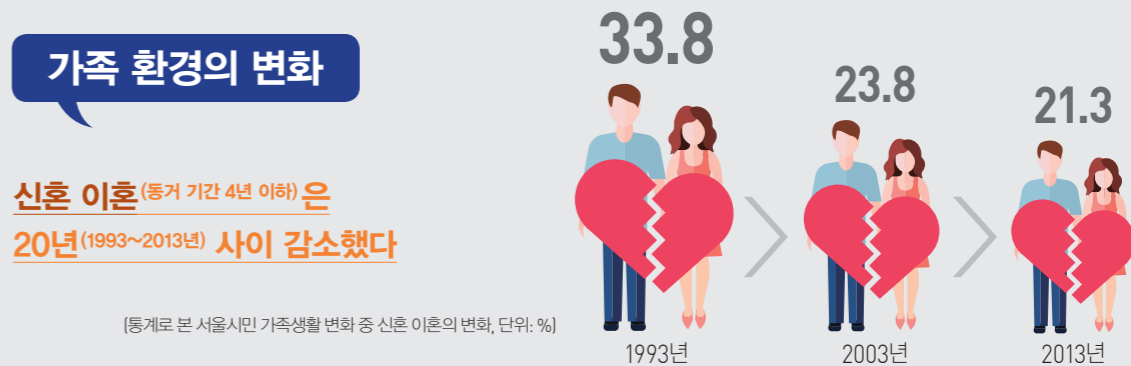


'이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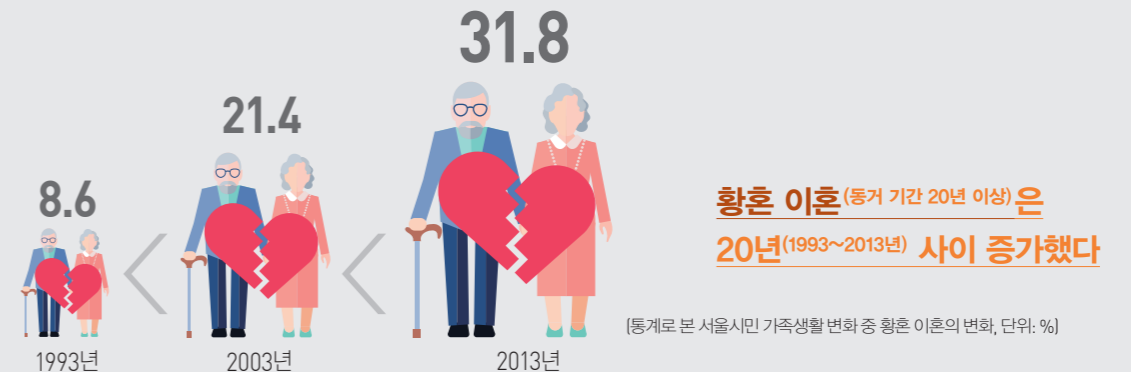


가족 환경의 변화

신혼 이혼(동거 기간 4년 이하)은 20년(1993~2013년) 사이 감소했다



황혼 이혼(동거 기간 20년 이상)은 20년(1993~2013년) 사이 증가했다



1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그래도 늘 소중한 다

01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02



여가에 혼자 TV 보는 일이 많다

03



그래도 항상 그리운 가족

서울시 가족은 지금 한집에 같이 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며, 그럼에도 늘 가족이 소중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과 생각의 차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CASE 01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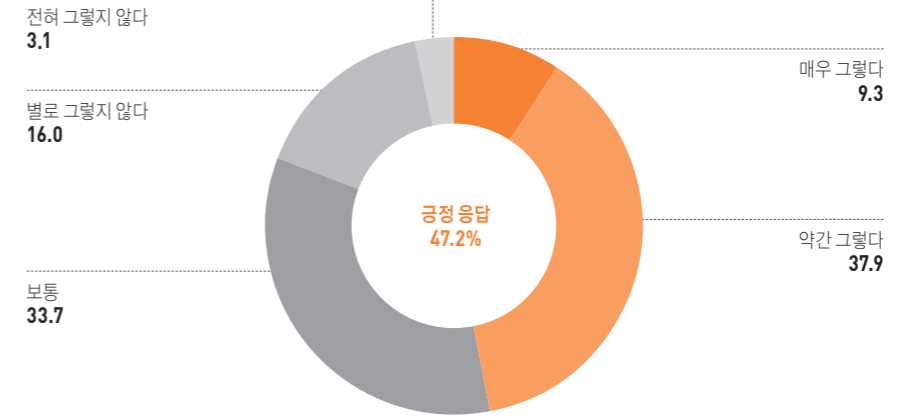
서울시민 가운데 식구가 다 같이 모여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된다(47.2%). 즉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5명은 식구들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식구들과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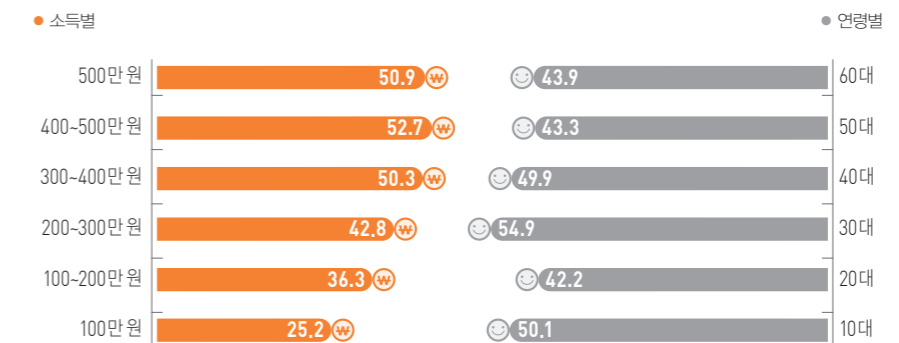
서울시 가족은 하루에 한 끼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일상적인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 간의 시간 빈곤 문제는 오랫동안 일하고 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등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보다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사는 보통의 맞벌이 부모들은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평균 노동시간 9시간(주당 45시간), 퇴근 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밖에서 지낸다.

서울시민의 가족과의 정기적인 식사 여부 (단위: %)



소득별-연령별 긍정 응답 비율* (단위: %)



출처: 서울서베이 2011. * 가족과 정기적으로 식사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로 응답한 이의 비율

그들의 자녀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 학업 시간 외에 학원과 이동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 무엇이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는 가족이 절반이나 된다. 이러한 시간 빈곤의 문제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공감대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CASE 02

여가에 혼자 TV 보는 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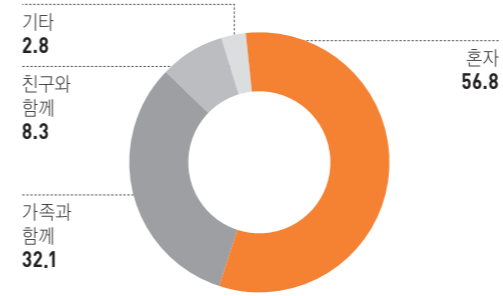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식사도 혼자 하지만 여가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즉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여가를 혼자 보내고, 3명은 가족과 함께 보내며, 나머지 1명은 친구와 보내거나 다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서울시민들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를 혼자 보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 안에서 TV를 보거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휴식형' 여가 활동은 다른 여가 활동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다거나,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학업으로 인한 반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일 동안의 과도한 노동이나 학업에 지쳐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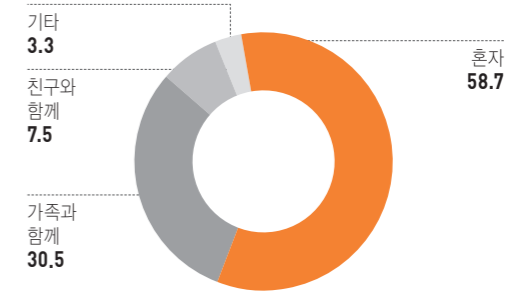
여가 활동 동반자 전국 평균

(단위: %)



여가 활동 동반자 서울시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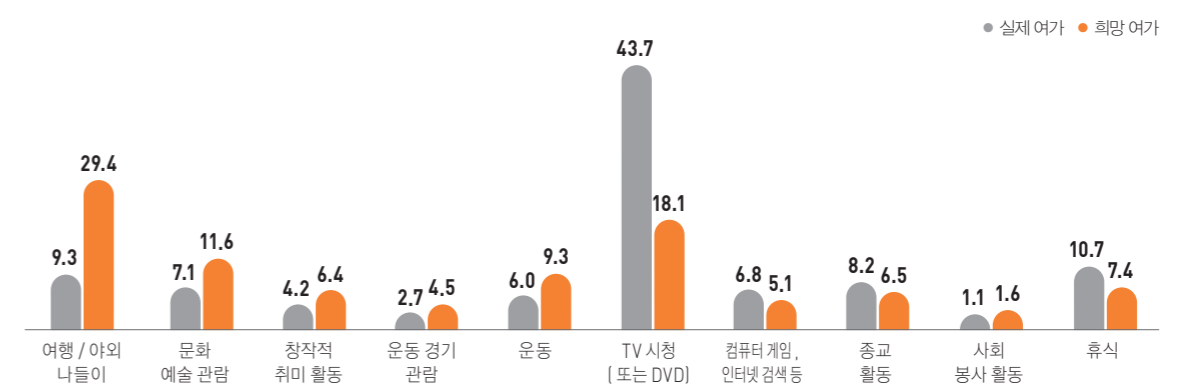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반면, 서울시민이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여행이나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등 '활동형' 여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는 시간이 부족하고 동반자가 없어 혼자 집에서 TV 보는 것이 전부이지만, 시간이 주어지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참여 여가 및 희망 여가 1순위 응답

(단위: %)



출처: 서울서베이 2012

CASE 03

그래도 항상 그리운 가족

실제 생활에서 개인은 긴 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여가가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짧은 여가라도 항상 가족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바쁜 일과 학업,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한 끼 식사도 같이 못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지만, 좀 더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활동할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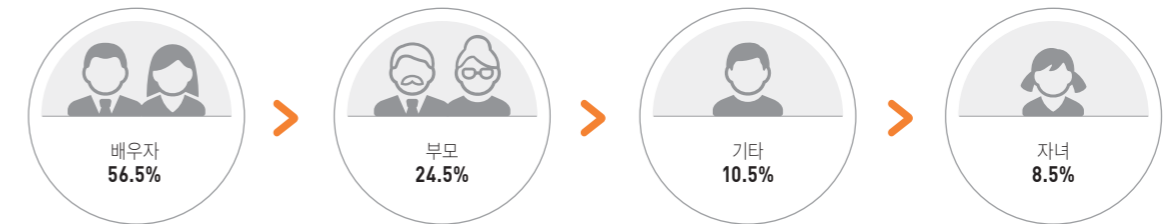


'2014 국민 여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난 뒤 서울시민들의 약 45%는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에 자기 개발 시간이 증가(34.8%)했다거나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넓히는 시간이 증가(20.6%)했다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현재 바쁜 일과 학업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다 같이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지만 주 5일 근무제나 '가족 사랑의 날' 등을 통해 여유 시간이 늘어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을 떠올린다. '2010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배우자(56.5%), 부모(24.5%), 자녀(8.5%)를 포함해서 가족이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9명꼴이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건강(67.6%)과 돈(47.3%) 다음으로 자녀, 배우자, 가정생활을 포함한 가족(32.7%)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 정도 되었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내 삶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서울시민은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현재 서울시민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기대와 요구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기대는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 행복해지려는 생각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가족은 매일 한 끼도 같이 먹지 못할 정도로 시간 빈곤 문제를 겪고 있고, 여가에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TV 보는 일이 많다. 그러나 여유 시간이 좀 더 생겨 가정에 남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여가 활동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결국, 서울시민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식사 시간이나 여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거나 공부하고, 휴가나 공휴일은 제대로 쉬며, 활기를 찾는 일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일(학업)과 다른 삶(가족과 여가)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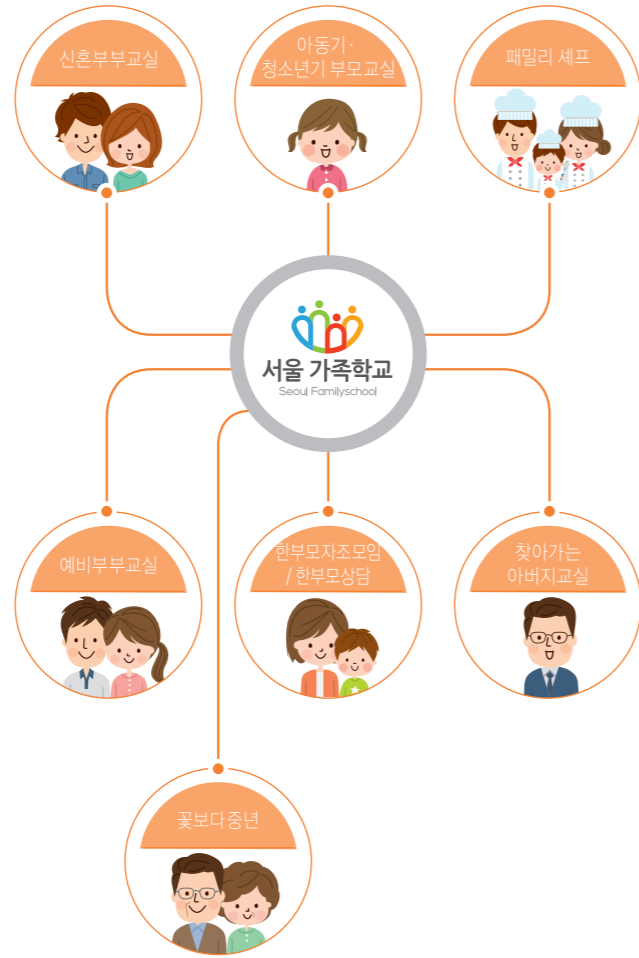
가족과 공감·소통 가족참여프로그램 마련

서울시민들이 평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한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가족이 함께 참여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마다 구성원이나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활동이나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생애 주기별이나 가족 형태별로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가족 주기별·형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톡톡학교'는 강의식이 아닌,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숍으로 진행하면서 가족 주기나 가족 형태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밥상머리 인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하루 한 끼라도 가족이 같이 식사하면서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패밀리 셰프' 프로그램(안내: <http://family.seoul.go.kr/>)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일상 속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가족이 함께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이나 주말 및 휴일에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서울시 가족 정책과 가족 관련 정보 자료 및 서울 가족학교와 같은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패밀리 사이트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여가 활동인 가족 캠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캠핑장을 늘리고 있으며, 동네에서 걸어가 접할 수 있는 도서

▶ **서울 가족학교**는 가족 생애 주기별·유형별 '가족특목학교'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패밀리 셰프'로 구성. 가족특목학교에는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과 베이비부머 가족교실인 '꽃보다중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한부모자조모임'과 '한부모상담'으로 구성(2015년 기준).



관이나 체육 시설 등의 가족 여가 시설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평일에 비해 여유로운 휴일이나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에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가정이나 정보 빈곤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서울시는 가족 여가 시설의 균형적인 분포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가족 여가 시설을 신규로 확충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함께 서울시민 입장에서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걸어서 숲에 가고 문화 시설에 가는 등 적극적 여가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남녀평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든 제도 및 프로그램(「서울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5 제정, 2014.5 전면 개정))를 '일·가족 양립지원'이라고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센터에서 '일이 있고! 쉬이 있고! 내 삶이 있는 서울'을 위해서 남녀 평등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연구, 인식 개선 및 문화 조성 캠페인, 그리고 기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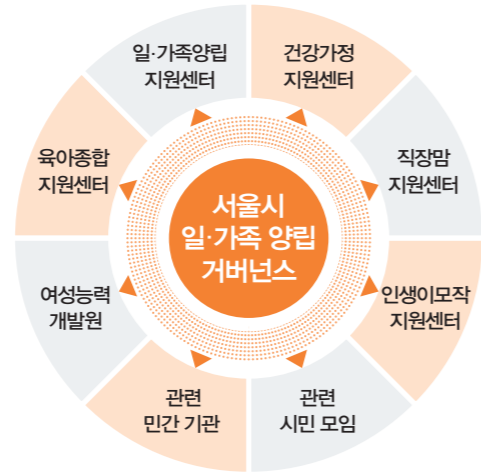
서울시 일·가족양립 지원센터의 사업



함께해보는 진단 및 컨설팅
서울시 일터와 시민의 생활 속 일·가족 양립 이야기를 스스로 체크한 후, 빠르고 간단하게 우리의 일·가족 양립 수준을 진단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일·가족 양립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의 특성 및 요구에 맞춘 제도 및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께 손잡고, 네트워크
일·가족 양립 전문 지원 기관, 일·가족 양립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한다.

서울형 일·가족 양립 거버넌스



함께 공부하는, 조사 및 연구

서울시 기업 및 기관의 일·가족 양립 인식 및 제도 현황 조사, 서울시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진단 등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함께 누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

서울시 일·가족 양립 문화 조성 및 실현을 위한 공통의 이슈를 캠페인화하여 서울시의 일·가족 양립 도시 만들기 및 시민의 질 향상 실현을 지원한다.

(2014~2015년) 일·쉼·내 삶을 위한 '888 캠페인'

- 8시간 일하고** 정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급여 2배 인상으로 영업이익 2배 증가 - 포드자동차 회사 -
- 8시간 쉬고** 직원들이 10시간 쉴 때마다 연말 성과 평점 8% 증가 - 언스트앤영(컨설팅 회사) -
- 8시간 즐기고** 본업 외에 취미 생활에 쓸 시간을 남겨두기 위해 일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직원 중심으로 채용 - 제프 즈웰링 CEO(미국 IT 기업 5개를 창업) -



* '888 캠페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56년에 'Eight Hour Day Movement'로 시작됨.

전문가 제언

일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민들이 가족과의 공유 시간을 늘리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 시간이나 학업 시간을 조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하려면 서울시와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지원 제도를 정착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민들의 가족 여가나 공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가 시간을 잘 보내지?', '주말에 가족들과 뭐하지?', '돈이 적게 들면서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등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주는 좋은 방법은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나 내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 의미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 창조적인 방법 등을 구분하여 사례 공모전을 하거나 이를 통해 여러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다. 또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정보와 함께 생활권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통합 정보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생활권 내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기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모든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시설 등을 하나로 묶는 '시설패스제'를 실시하는 것도 제안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특히 생활권 내 모든 시설을 한 번의 등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주는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취미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한다. 가족봉사단이나 가족동호회(가족밴드, 가족신문, 가족합창단, 가족전시회 등)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을 전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서울시 가족여가박람회나 서울시 가족여가축제 형태의 적극적인 방법도 제안한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다 같이 요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가 특히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취재, 최혜진
블로그 기자단 10기

‘패밀리 셰프’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잦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주말에만 같이 식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에 갔었는데, 거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사는 중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아빠와 아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패밀리 셰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다 같이 요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가 특히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나는 엄마가 이래서 참 고마웠어. 나는 우리 딸이 이래서 참 고마웠어’ 이런 말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프로그램 중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이래서 참 고마워. 아빠가 이래서 참 고마워.” 얼마나 예쁘던지. 그리고 그게 점점 가족 단위로 확대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로 시작했다가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그리고 주변 가족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아이가 외동딸이다 보니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편이라 예쁘게 키우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걸 보고

걱정을 덜었어요. 아이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린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애한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분명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저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이와 늘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교감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걸 패밀리 셰프의 가족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아이랑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감이 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아이와 좀 더 교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제가 패밀리 셰프에 참가하자고 했을 때 좀 어색해하면서 따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와 교감하는 법을 교육해주니까 많이 인상 깊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랑 대화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눈높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의 다른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에 대해 조언해주니까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집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식사시간에 대화를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TV를 켜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의 모든 대화가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위주이고요. 요즘에는 식사 시간에 TV를 끄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노력중인데, 그날 하루동안 있었던 일상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 오늘 너 정말 기분이 안 좋았겠다’와 같이 공감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패밀리 셰프 시간에 소통법을 알려주신 게 많이 도움이 되어 아빠가 예전에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돼’ 식으로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래, 속상했구나.’ 처럼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심화가 돼서 심도 깊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는데 아이에게는 크게 와 닿았나봐요.

2

엄마는 일하러 간다!
그런데 가정 살림과 돌봄은?
여전히 엄마가...

01



엄마는 일하러 간다!

02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육아

03



아버지도 유모차 끌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가족은 지금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맞벌이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정내 평등한 성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동시에 아버지의 가족 역할 확대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CASE 01

엄마는 일하러 간다!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1995년 25.9%에서 2005년 30.1%로, 그리고 2014년 37.8%로 상승했다. 즉 지난 20년 동안 전통적인 남편 1인 생계 부양자 형태의 가구는 감소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추세로 진입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그동안의 남편은 생계 부양자, 아내는 살림과 돌봄 전담자라는 성별 역할 분담의 체계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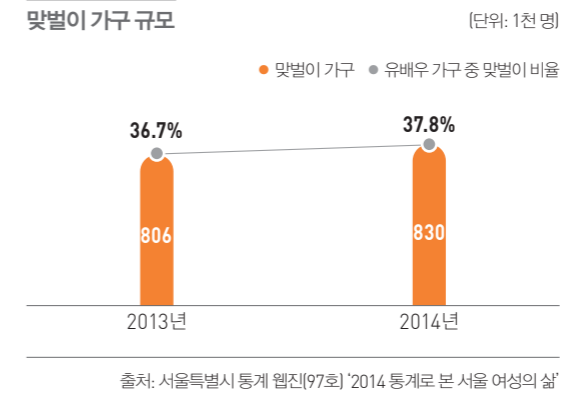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최근(2014년)까지의 동향 역시 지속적인 맞벌이 가정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가구 수는 2013년 80만 6천 가구에서 2014년 83만 가구로 늘었다. 또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도 2013년 36.7%에서 2014년 37.8%로 1.1%p 증가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97호) '2014 통계로 본 서울 여성의 삶' 서울 여성의 삶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추세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가정 내 가족원 돌봄 수행 방식,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 설계 등의 차원에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직장 등의 생활 영역에서 여전히 간주되고 있는 '집에는 엄마가 있다', '가사는 엄마의 일'라는 전통적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는 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로써 일하는 여성과 남성, 일하는 부모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 특히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이 문제이다. 이로 인해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의 가족 역할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관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여성과 남성, 즉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성별 불평등한 역할 분담은 맞벌이 가정에 있어 여성에게는 일과 돌봄의 이중 부담을, 남성에게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가족 역할 소외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일-생활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의 가족 역할 취약,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육아로 인한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남성의 가족 돌봄 확산이라는 소주제를 구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CASE 02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육아

서울시의 경우, 2014년 만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33만 명으로 18.5%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4월)에는 20.8%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특히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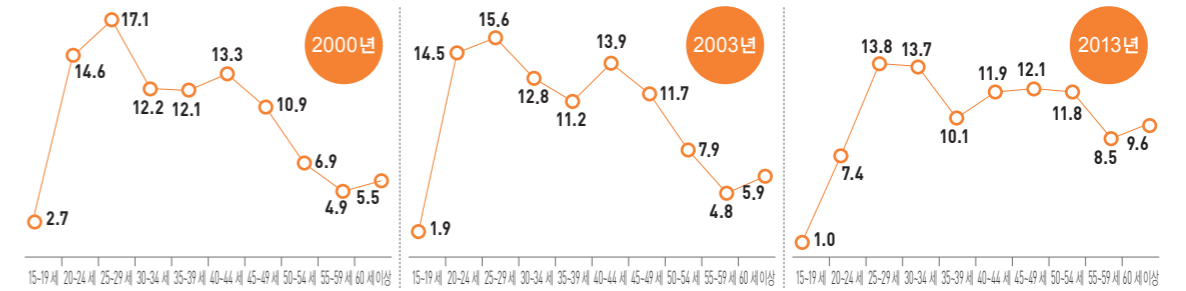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3년 17.3%에서 2014년 18.5%로 상승하여 남성 대비 뒤떨어지지 않는 역량과 인적 자원을 갖고도 취업 현장에서 많은 여성이 생애 동안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한 M-curve의 생애 노동

○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상반기' 4월 기준. 가족 돌봄을 제외한 결과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분석함

서울시 취업 여성의 생애 노동 주기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6(83호) '2014 통계로 본 서울 여성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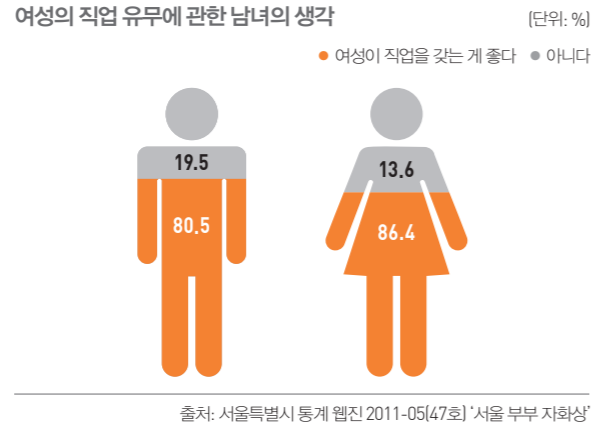
주기는 지난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진 문제인데, 서울시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추세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들은 중단 없는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생애 지속적 노동의 요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조사에서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28.7%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45.4%로 증가했으며, 여성들 자체적으로도 절반(48.0%) 정도는 가사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3-06(70호) '통계로 본 서울 여성의 삶'

남성들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80.5%, 여성은 86.4%가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의 취업 시기에 대한 남성의 응답은 가정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비중이 1998년 29.1%에서 2009년 53.3%로 크게 늘어나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성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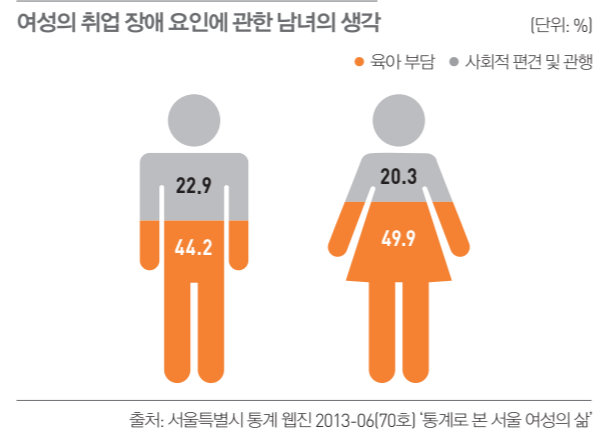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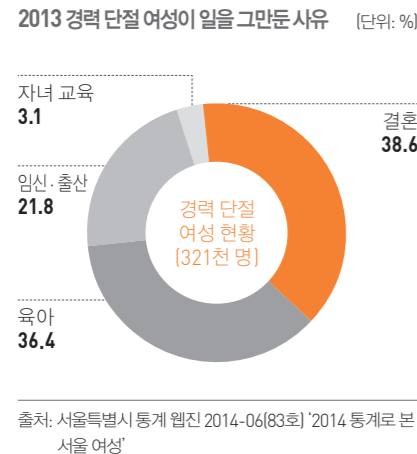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1-05(47호) '서울 부부 자화상'



여성이 행복한 서울은 곧 '육아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며,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문제'라고 서울 여성들은 말한다. 특히 출산과 육아 문제에 가장 크게 직면해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서울 여성은 여성 행복의 우선 과제로 '육아 문제 해결'을 들고 있으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에서는 이와 같은 응답이 절반 이상(52.9%)을 차지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결혼, 육아, 임신과 출산 등으로 나타나 결국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아 부담이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 1순위라는 인식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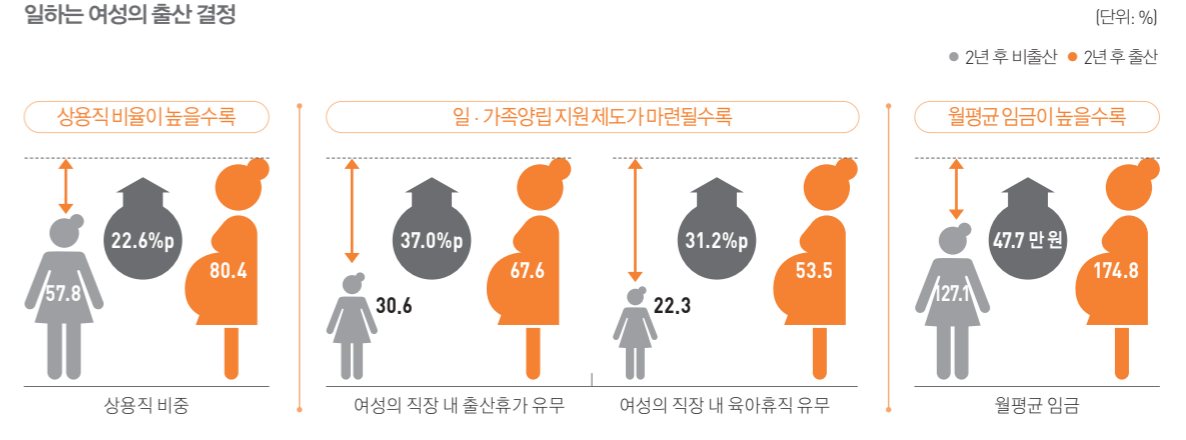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보도 자료(2008/08/15) - 30~34세 서울 여성 52.9%, 여성 행복은 육아 문제 해결부터



이와 같이 서울시 여성의 삶에 있어서 취업과 관련하여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이 자녀 돌봄, 즉 육아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은 여성의 중단 없는 취업이 실현되지 않는 한 저출산의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고용안정 > 일과 가족의 양립 > 임금 안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로써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생애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해지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여성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 측면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유지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성 개인적으로는 중단 없는 취업 생활에 대한 요구가 충족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부담 및 경력 단절 문제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 결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4-15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07/06)

CASE 03

아버지도 유모차 끌 시간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추세는 남성에게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그동안 수행해오던 전통적인 생계 노동 부양자 역할 외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부과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취업 활동으로 인해 가족원 돌봄에 투입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남성이 여성과 함께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과 맞물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시간 동안 노동하는 남성의 경우 가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가정 내 살림과 가족원 돌봄 그리고 가정 밖에서의 직장 노동을 병행하는 이중 노동 부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 문제가 곧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높아진 학력, 자아실현이나 사회 활동 경험에의 요구, 경제적 독립성 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 내 주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경감되지 않는 한 여성은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곧 경력 단절 아니면 저출산 문제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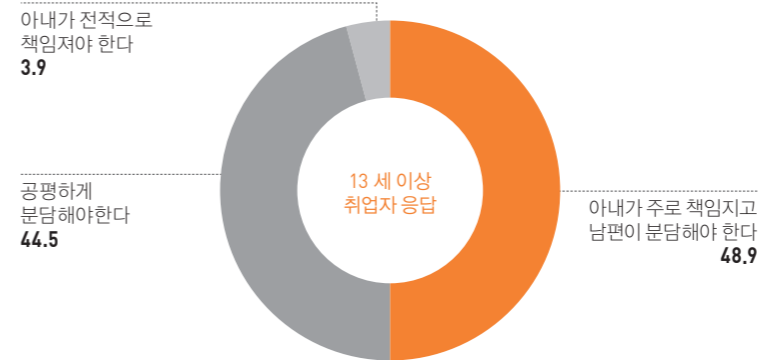
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 역할을 확산시키지 않으면 가족 원으로서의 위상이 취약해짐과 동시에 아내와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한 조사에서는 가사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44.5%(13세 이상 취업자 응답)로 나타났음에도, 실제 맞벌이 가정에서조차 공정 분담률이 21.9%에 불과하고, 4명 중 1명은 여전히 아내가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가정 내 가사는 여전히 아내 몫으로 남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률에서 남성은 70.9%인 반면, 여성은 57.2%에 불과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5(81호) '통계로 본 서울 가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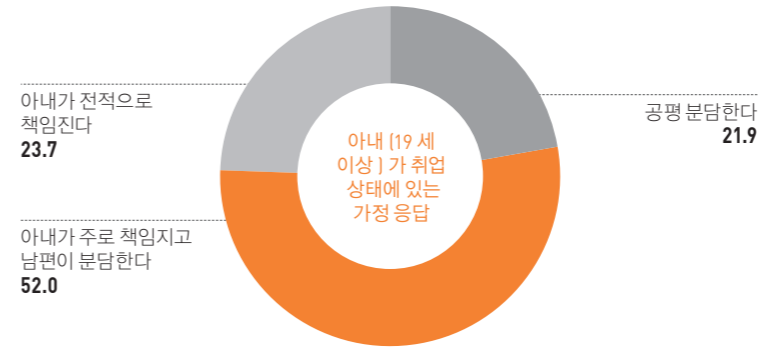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실제 부부간 가사 분담

(단위: %)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5(81호) '통계로 본 서울 가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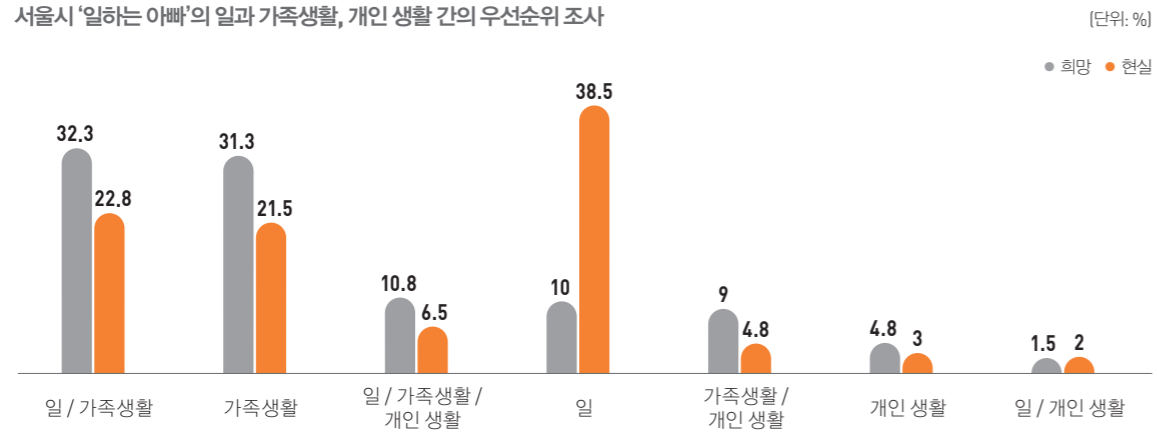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곧 남성의 경우에도 역시 전통적으로 수행해오던 생계 부양자 역할과 함께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가족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취업은 빠르게 향상되는 데 비해, 남성의 가족 역할 확산 속도는 지체됨으로 인하여 여성에게는 이중 노동 부담(집에서도 일, 밖에 나가서도 일)과 경력 단절의 문제가, 그리고 남성에게는 과도한 생계 노동 부담과 가족 역할 취약이라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11년에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일하는 아빠의 일과 가족생활, 개인 생활 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욕구와 실생활 간의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이슈 분석 2011-6호] 서울시 30~40대 자녀양육 남성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 현황 및 문제점, 2011.12. 1-14

서울시 '일하는 아빠'의 일과 가족생활, 개인 생활 간의 우선순위 조사



출처: [이슈 분석 2011-6호] 서울시 30~40대 자녀양육 남성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 현황 및 문제점, 2011.12. 1-14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의 가족 역할 확대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남성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갈망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 역할 확대를 위한 남성 개인의 노력은 물론, 전 사회적 차원에서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무,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등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여성 취업의 활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과 남성의 가족 역할 취약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 그리고 아빠의 일과 생활의 균형은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NEWS
서울시 3040 일하는 아빠, 긴 노동시간에 따른 업무 과다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다. 서울시 3040 워킹 대디 일·가족 양립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040 일하는 아빠들이 긴 노동시간에 따른 업무 과다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SUMMARY

일하는 여성은 이중 노동 부담을, 남성은 가족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기혼 취업 여성의 생애 노동 주기가 여전히 M-curv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기혼 취업 여성의 직업 생활에 있어 여전히 생애 일정 기간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핵심적 원인은 육아, 즉 자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경력 단절은 지속적인 직업 생활을 요구하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 기혼 여성의 가족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남성들은 일과 가정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일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직면하고 있다.
- 결국 일하는 여성은 직장 노동과 가정 노동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 노동 부담을, 남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가족에서의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 지속적 노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남성의 가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역할 분담을 위한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와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사업이 모두 함께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바야흐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시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이고도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족원 돌봄을 공평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로써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여성의 가족원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가족 역할 확대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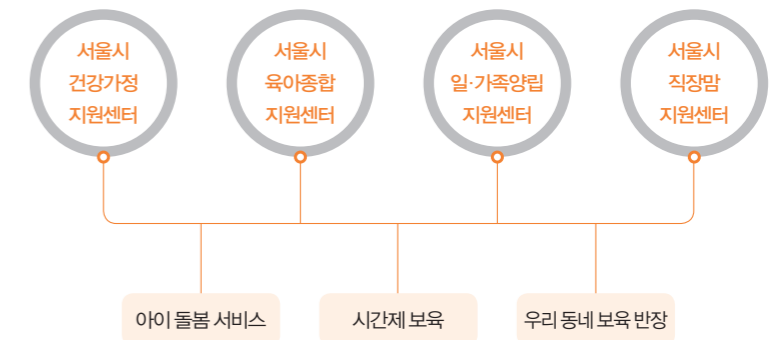
서울시의 경우 가족과 여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건강가정시행계획, 저출산 정책시행계획 그리고 일가족양립지원종합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영역별로 볼 때 서울시의 가족 정책은 한 부모 가족 지원, 건강 가정 조성, 임신부 지원, 결혼 이주 여성 지원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시 홈페이지). 이러한 영역에 있어 세부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 품앗이 및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직장 맘을 위한 종합적 지원 등이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라는 추세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시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여성종합가이드북 <여성을 위한 꼼꼼 서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관과 사업을 중심으로 기혼 취업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생활 밀착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여성종합가이드북 <여성을 위한 꼼꼼 서울>



2015년 여성종합가이드북 <여성을 위한 꼼꼼 서울>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가족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남성의 가족 역할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맘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

-  직장맘의 모성 보호와 일·가족 양립 직장 문화 조성 및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지원
-  직장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 찾아가는 커뮤니티 제공
-  직장맘 자녀 방과 후 학습 등 돌봄 서비스 및 맞춤형 보육 정보 제공

두 번째,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과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의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실시 기관으로 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족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소재의 기업, 공공 기관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 구상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간 소통 증진 및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아빠 직장 체험 등을 실시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 남녀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
-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캠페인
-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일·가족양립 관련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형성
- 888캠페인(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즐기고)



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들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행복가족 프로젝트
- 가족 상담
- 가족생활 교육
- 가족 역량 강화
- 가족봉사단 활동
- 가정법원과 함께하는 비양육자 캠프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 아이 돌보미



family.seoul.go.kr

행복가족 프로젝트

한 부모 가족 자조 모임 지원을 통해 한 부모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2015년 기준, 10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함

가족 상담 특화 사업

서울 지역의 특성화된 가족(부부) 상담을 지원하고, 한 부모(조손) 가족을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성 회복, 갈등 해결 지원

가족 한마당

가족 한마당은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가정법원과 함께하는 비양육자 캠프

이혼 조정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비양육자 부모와 자녀의 1박 2일 숙박형 캠프를 진행하여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 친밀감 향상과 원활한 이혼 조정을 도모함

네 번째로 최근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가족 사업 중 부각되고 있는 서울가족학교를 들 수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의 일-생활 균형 및 남성들의 가족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가족학교

가족특수학교




서울가족학교의 대표 프로그램. 예비부부 교실과 신혼부부교실, 베이비부머(중·노년기) 세대 가족교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로 나누어 운영

패밀리 셰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 시간을 갖고, 눈높이 대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성 역할 모델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다섯 번째로 '아이조아 아빠교실' 프로그램은 특히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평등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이조아 아빠교실

-  자녀 동반 체험형 놀이교실과 강의형 아빠교실로 나뉘며, 영아반(만 0~2세)과 유아반(만 2~5세)으로 구분하여 운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을 정립하고 양육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격주 목요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기본적인 영·유아 발달부터 주제별 심화 내용 등 아버지 입장에서의 아이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적인 양육 방법을 배우고 자녀와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 상기 내용은 2015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서울시가 가족과 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적 사업들은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고, 양적은 물론 질적 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2015 아이조아 아빠교실' 홍보 포스터

전문가 제언

맞벌이 가정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송혜림 울산대학교 교수

향후 맞벌이 가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서울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전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관련되는 전달 체계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정책의 성과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이 있어야 증대될 수 있다.

-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이 잘 알고 그 사업에 수월하게 접근함으로써 체감형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현상은 양성 평등한 역할 분담의 문화와 함께 확산되어야 하므로, 성장기의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맞춤형의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보육 시설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양성 평등 교육의 강화, 표준화된 교과 과정과 교구 개발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강화
 - 고3 수험생, 수능 시험 직후 시간을 활용한 양성 평등 교육, 교육청과 연계
-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재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

고 있는바, 시에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력할 필요가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친화 컨설턴트 양성 및 각 일터에 배치 혹은 파견 → 해당 일터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 친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가족 친화 기업 인증에 공공 기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규모와 유형의 차이를 반영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지막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정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일하는) 남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

- 10명 중 9명 이상(92.5%)이 현행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
- 이를 위해 △불필요한 초과, 잔업, 야근 감소(37.9%) △직장 상사 및 관리자 인식 개선(26.5%) △유연 근무제 활성화로 생산성 향상(20.9%) △업무량 감소(14.7%) 등이 필요
- 남성의 육아 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 10명 중 5명(52.2%)은 '현재 총 2년(부부 합산)인 육아 휴직 기간을 유지한 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
- '휴직 기간을 줄이는 대신 휴직 급여액(통상 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을 높이는 방안'도 47.8%
- 직장 내 가족 친화 문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경명친과 중간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59.1%) ▲사회적으로 남성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24.2%)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11.8%) 등의 순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워킹 데디 일-가족 양립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 아중경제 2015/09/01
 서울시 3040 일하는 아빠, 긴 노동 시간 업무 과다로 일과 가족 양립 어려워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서울형 맞벌이 가정 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 어떻게 해야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이 사라지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뜻의 '프렌 데디'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이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만큼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직 이러한 상황에 당혹스러움부터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성장할 때 경험했던 아버지의 역할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교육을 받고자 해도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2009년부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중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평소 자녀와 놀아줄 시간이 없는 바쁜 아버지들을 위해 아버지들의 직장이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은 사람들의 삶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으로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개인과 직장, 나아가 사회



“ 실제 육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족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정책과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활용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매출액이 3.8%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참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2015년 10월 31일(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림세계 어린이 집에서 20여 가족의 참여로 열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찾아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길민영·길승준 부자를 만나다

기자· 간단한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세 식구입니다. 아이는 승준이 하나죠. 승준이는 다섯 살입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애착이 많이 갑니다.

기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참여자· 늦게 얻은 아들이라 평소에도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기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이런 교육이 있어 기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이며, 평소 아이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참여자· 평소에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친구처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하지요. 집에서 간단한 도구로 놀잇감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주말만큼은 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참여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참여자· 그동안 아이 양육에 있어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한 길을 찾은 기분입니다. 특히 아이에게 스스로 사고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 먼저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잘못된 태도로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 놀이 시간은 집에서 아이와 돌이 놀 때는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아이들과 같이하니 더욱 신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참여한 후 혹시 가정에 변화가 생긴 것이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나요?

참여자· 평소 저희 부부는 부모의 욕심보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승준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흔쾌히 밀어줄 겁니다. 이것은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가 시간에 가족과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참여자· 아직은 승준이가 어려서 생각뿐이지만 조금 더 크면 캠핑이나 여행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 숲과 아스팔트 바닥만 밟고 살아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승준이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추억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기자· 아버지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참여자· 사실 아빠들은 아이의 양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인터넷이나 책에서 자료를 찾아봐도 일반적인 내용에 그칠 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육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참여자· 이런 프로그램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하루였으며 좋은 아빠로 가는 길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서울시와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3

나 홀로 가구,
나도 가족이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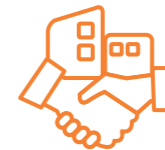
서울시나 홀로 가구의 증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02



1인가구도 가족이다!

03



이웃, 동네, 지역사회가 가족이다

서울시가족은 지금 가족의 구조, 기능, 형태의 역동적 변화 가운데 가족원의 분산과 개별화가 부각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나 홀로 가구, 즉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체와 모임, 커뮤니티 등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CASE 01

서울시나 홀로 가구의 증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서울시 가족의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1인 가구, 즉 '나 혼자 산다' 혹은 '나 홀로 가구'에 해당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나 홀로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는데(통계청), 학업과 직업 그리고 사별, 이혼, 분거, 길어진 노년기 등 다양한 원인이 나 홀로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 가구의 높은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다른 가구 형태와의 비교, 세대 구성별 가구 형태, 가구원 규모 등의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오른쪽 그림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도 지난 30년간(1980~2010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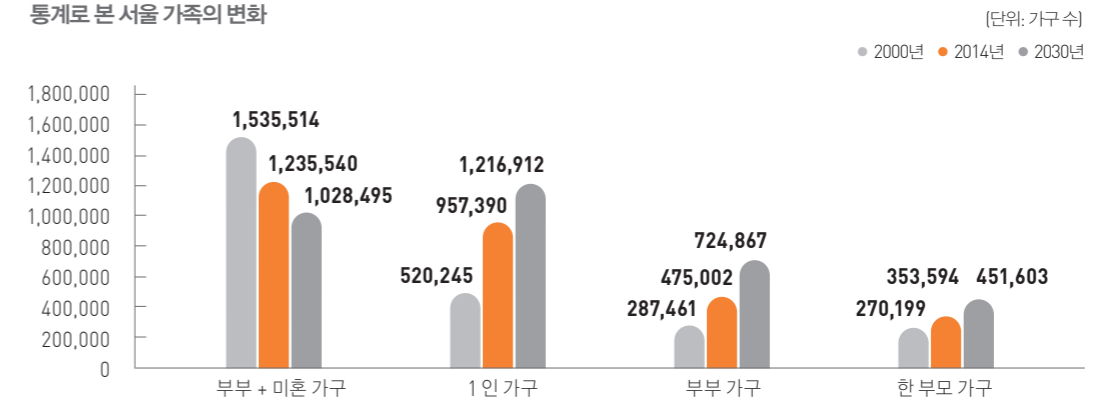
○ 뉴시스 2013/10/22 '서울, 부부만 사는 가구 4배·1인 가구 10배 증가'

년 현재 부부 가구나 한 부모 가구보다 1인 가구 수가 더 많고 2030년에는 4가지 형태의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혼인율 등의 지표를 보면 앞으로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즉 결혼과 이혼이 개인의 선택 문제(약 41%)라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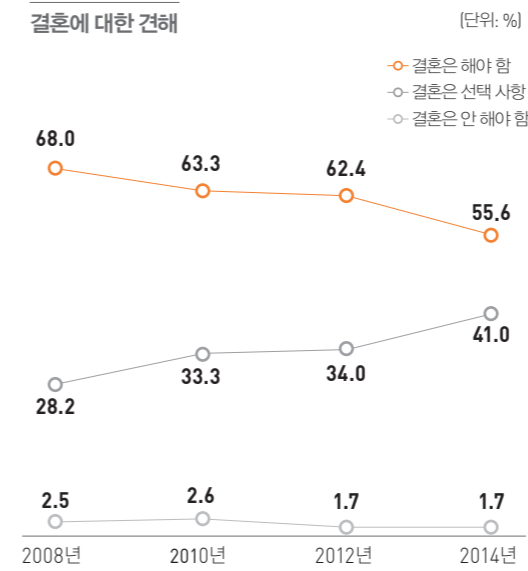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통계웹진 2014-12(89호) '15세 이상 57.0% 가족관계만족' 재인용

통계로 본 서울 가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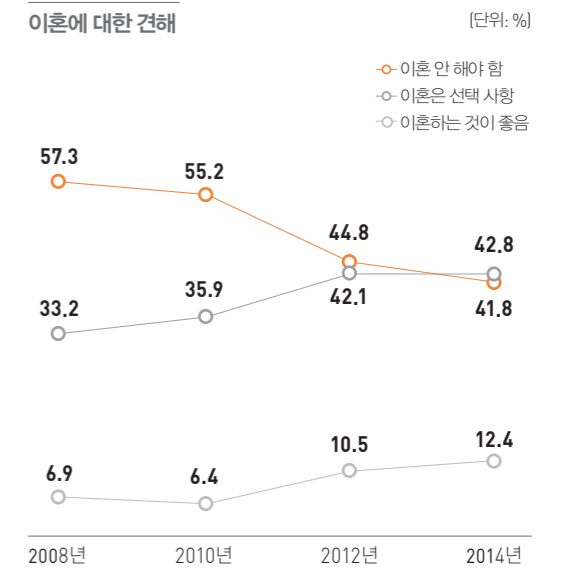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 가구 추계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2014) '통계로 본 서울 가족의 변화' 재인용

결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12(89호) '15세 이상 57.0% 가족 관계 만족' 재인용

의 비율은 줄어들고 선택 사항이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혼은 안 해야 한다는 비율이 줄고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실제로도 2013년 서울시의 혼인 건수는 6만 9천 건으로 20년 새 33.5%(3만 5천 건) 감소했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6.5건으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의 경우 1993년 1만 5천 건에서 2003년 3만 2천 건으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부터 연 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덜 하고 이혼은 더 많이 하는 추세는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혼화 추세를 통해서도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혼인의 주 연령층은 이제 남녀 모두 30대 초반으로, 갈수록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부각된다. 즉 결혼을 늦게 할수록 1인 가구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연령대나 구성으로 볼 때 청·장년, 중년, 노년 등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저출산, 비혼·만혼의 증가, 이혼·별거의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 가구주 역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5.0%에서 2030년 29.6%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 황혼 이혼 등의 증가가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1인 가구를 하나의 동질적인 형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양한 요구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5-05(94호)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12(89호) '15세 이상 57.0% 가족 관계 만족'

○ 전국적인 추세 역시 2010년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39세 이하가 38.7%, 40-50대가 29.4%, 60세 이상이 31.9%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통계청).

CASE 02

1인가구도 가족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때, 누구든지 늘 2인 이상의 식구와 함께 한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애 일정한 시기는 여럿이, 또 다른 시기는 혼자 사는 방식으로 생활 주기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긴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동안 1인 가구의 형태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는 현재처럼 학업과 직업을 위한 이동이 많은 시대에 더욱 그러하며,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더 많아져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때로는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또 때로는 한 가족이 두 지붕 아래 나뉘어 살기도 한다. 청·장년 1인 가구는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살던 가구는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1인 가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혼이나 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자녀의 군 입대나 학업, 가족원의 직업적 이동 등으로 다시 1인 가구의 형태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인 가구는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즉 개인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개인임과 동시에 대부분은 원가족이나 자녀 가족이 있거나 혹은 일시적·장기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 가족의 일원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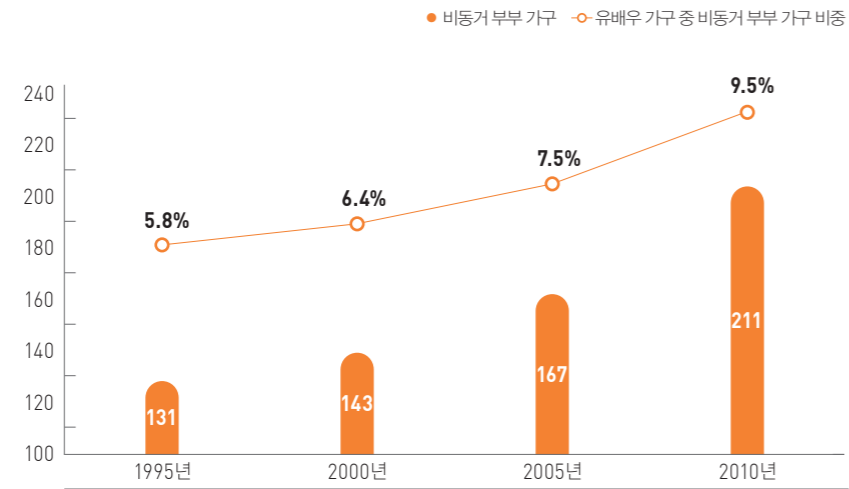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분거 가구는 38만 가구로 일반 가구(350만 4천 가구)의 10.8%를 차지했다. 주된 원인은 학업 및 직업[○]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0년 비동거 부부 가구 21만 1천 가구 중 39.8%에 해당하는 8만 4천 148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1인 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 40대 독신 남성 중 20%는 유배우 상태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어도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개인이 아닌 가족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1인 가구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대부분은 어딘가에 가족이 살지만, 현재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원 중 1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족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1-08(50호) '부부 등 소핵가족 늘어나'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2-10(64호) '따로 사는 서울 부부'

비동거 부부 가구 추이 및 유배우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가구)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2-10(64호) '따로 사는 서울 부부'

CASE 03

이웃, 동네, 지역사회가 가족이다

1인 가구에 주목할 때 1인 가구 구성의 자발성이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에 초점을 둔다면 1인 가구가 처한 문제 상황이나 취약점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물리적으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의 약화, 고립, 외로움, 안전, 돌봄의 취약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특히 주거와 안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건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 서울시 시민 청책(열린 마루) - 내가 여는 열린 마루 개최 내용 중 2015년 5월 20일 비혼/비혈연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대해: 1인 가구의 외로움, 우울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요구 도출

즉 1인 가구에겐 이웃, 동네 그리고 지역사회가 친밀한 가족과 같은 일상생활의 환경이 되어야 하며, 주민과의 상호작용은 가족과의 소통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웃과 동네 그리고 지역사회가 곧 가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과 커뮤니티, 공동체에의 참여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앞에서 1인 가구의 형태나 구조에 있어 다양성을 제시했는데, 1인 가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많은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며, 안전의 경우 여성과 노인 1인 가구가 더 많이 우려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45만 싱글 여성들이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 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학업 혹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를 형성하거나 결혼 전 단계에서 미혼 상태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경우 식사와 여가, 취미 등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활동이나 시간을 공유하는 일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가이드북 <Plan B>는 싱글리즘, 불안, 함께 살기를 키워드로 비혼 여성과 1인 가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보도 자료 2013/08/01

천만 상상 오아시스 제안 글

이젠 나홀로 집에 있어도 걱정 끝!

서울시 홈방범서비스가 365일 밤낮으로 지켜드립니다.

- 싱글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에 투시경 설치 (2014년 2월 6일)
- 2014년 종료된 싱글 여성 홈방범 서비스 다시 시행시켜주세요. (2015년 1월 5일)

비혼 여성 · 1인 가구를 위한 가이드북 <Plan B>

나를 바꾼 여성주의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언니네트워킹

비혼여성 · 1인가구를 위한 가이드북

함께 신청하기 >> 클릭!

가이드북 Plan B 북투크소

2014년 10월 16일(목) 저녁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
- 언니네트워킹이 제작한 비혼 여성·1인 가구를 위한 가이드북

'1인 가구'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셜 모임'이 새로운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사 모임과 공동체의 사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셜 다이닝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밖에 반찬 만들기와 같은 소모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어하우스'가 부각되고 있다. 세어하우스는 하숙, 기숙사, 원룸과는 달리 여러 사람, 즉 1인 가구들이 집을 나누어 사는 형태로, 한 지붕 아래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보통 도시의 높은 보증금 부담 때문에, 혹은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세어하우스를 선택하고 있다.

○ 서울신문 2015/09/16

○ 뉴스토마토 2015/09/21

소셜 다이닝 '집밥'

- 1인 가구가 늘고 바쁜 일정에 쫓겨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소셜 다이닝이 확산.
- 소셜 다이닝 '집밥'은 2012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음.
-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밥은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음식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변화로 우리의 식탁에 새로운 개념의 '집밥'이 등장.

출처: 서울시 온라인 뉴스 서울톡톡 2013/01/31



반찬 만들기 소모임

- 2013년 4월,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과 시민단체 '민중의집'에서 마포 구민과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반찬 만들기'라는 소모임을 개최.
- 개인 공간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생활의 기본인 먹는 행위를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1인 가구 반찬 만들기'와 같은 소셜 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연합뉴스/2013/4/14 베네핏 매거진 공식블로그

세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 서울시는 2012년 12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
- 세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인 도봉구 방학동 2층 단독 건물 2채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한 지붕 아래 다수의 1~2인 가구가 함께 살되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며 살아가는 임대주택을 의미.
-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에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세어하우스를 공공 임대주택에 적용하여 거실, 주방 등은 같이 쓰고 침실, 욕실은 따로 사용하는 방식. 서울시는 입주민간 소통과 상호 협력,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아 '우리 동네 두레주택'이라는 짓고 2014년 6월 중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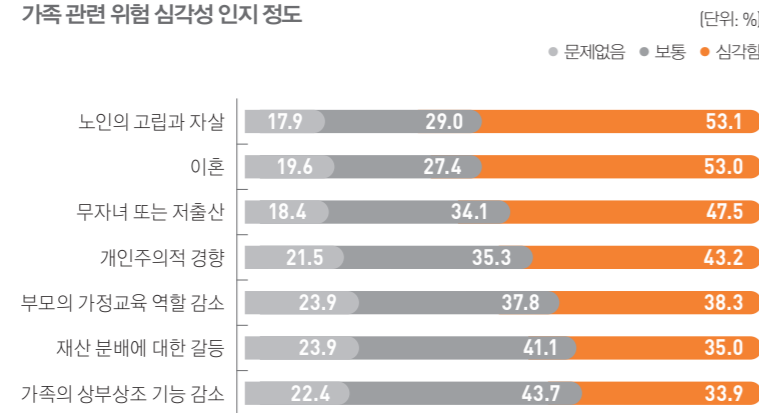
출처: Socialhousing(소셜하우징) 국내 사례 - 세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서울시) blog.woozoo.kr/220125609956



이처럼 청·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는 추세인 데 비해 60세 혹은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007년 15만 8천 명에서 2013년 25만 3천 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가족 관련 위험 심각성 인지 정도



출처: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한편 노인의 고립과 자살은 이혼과 함께 서울시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우선순위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의 고립과 자살은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함께 나누고 그 해결의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 1인 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이혼의 경우 1인 가구가 되는 하나의 경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인 가구 관련 정책과 제도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이슈라고 할 것이다.

노인층은 청·장년 세대에 비해 온라인 소통에 덜 익숙할 가능성을 고려해 '면 대 면' 소통이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사례와 같이 다른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나 세대 간 상호작용과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설계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12(89호)
'15세 이상 57.0% 가족 관계 만족'

NEWS

- 여성가족정책 최우수 구는 '동작구'와 '강동구'
- 서울시, 자치구 2014년 여성가족정책 종합 평가 발표
- 서대문구, 독거 어르신과 대학생 주거 공유 등 가족 정책 특화 눈길
- 우수 구로 선정된 서대문구는 가족정책 특화사업으로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는 독거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 공유(홈 셰어링) 사업을 추진

출처: 베이비뉴스 2014/12/10

SUMMARY

서울시 1인 가구 대부분은 어딘가에 가족이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다

서울시 가족은 지금 다양한 가족의 변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된 하나의 대표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1인 가구라 할 수 있다. 다른 가구 형태와의 비교, 세대 구성별 가구 형태, 가구원 규모 등의 지표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혼인율 저하, 이혼율 증가, 만혼화 추세, 고령화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연령대나 구성에 있어 청·장년, 중년, 노년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1인 가구를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즉 개인임과 동시에 대부분은 원가족이나 자녀 가족이 있거나 혹은 일시적·장기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 가족의 일원이라는 차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1인 가구 대부분은 어딘가에 가족이 살지만 현재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원 중 1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족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를 가족의 일원으로 접근할 경우 포괄적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 과제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써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포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일상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국 이웃과 동네 그리고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모임과 커뮤니티 사례를 소개하였다.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령층이 그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것이다.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1인가구 확산에 따른 정책 설계와 제도 지원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의 빠른 확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여성 전용 안심주택, 여성 전문 진료 센터 등을 만들어 여성 1인가구 안전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환경적으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인가구 종합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사안을 조금 더 보완해나간다면 대한민국 1인가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출처: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2015년 현재... 1인가구 정책, 무엇이 있을까?' 공공 정책 / 기재부 경제 이야기, 2015/06/19

또한 2015년 신혼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52세대 공급^o, 2013년 저소득 1~2인 가구 및 독신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원칙의 일환으로 공공 원룸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800호를 6월 4일(화)부터 시 및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하는 등^o 1인가구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2015년 서울시의회에서는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인가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박람회도 열렸다^o.

한편 서울시는 2012년 9월 지자체 최초로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주거와 안전,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증가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설계와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크게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o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공급팀 보도 자료 2015/07/14

^o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보도 자료 2013/06/03

^o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korealand.tistory.com/5805) - 대학생 기자단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거 공간으로의 변화, 2015/09/24

서울시(2013년) 하반기에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와 '여성 안전'에 대한 지원 강화

서울시는 여성 단체에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제2차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 하반기에 이뤄지는 제2차 공모 사업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여성안심특별시 조성 사업이다.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으로 주거, 건강 등 문제 해결 도와

- 먼저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주거·일자리·건강·안전 등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먹거리·건강 고민·문화생활 등 싱글 여성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펼친다.
-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예로는 1인 여성 가구끼리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소셜 다이닝', 인근 여성 1인가구끼리 텃밭 가꾸기 사업, 경제(재무)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 물품 공동 구매 및 대여해주는 사업, 여성 독거 어르신 동아리(뜨개질, 서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를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드는 다양한 안전 사업들도 지원

- 무인 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실시해 혼자 살고 있어 택배를 받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쁜 직장 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여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tbs교통방송 2013/07/31

포괄적 가족 정책 측면에서 제도와 사업이 도출되어야 할 것

송혜림 울산대학교 교수

가족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1인 가구를 가족 정책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고 있다. 1인 가구를 단순히 개인으로 볼 때 명시적 차원에서의 가족 정책보다는 주택 정책, 노인 정책, 고용 정책 등 개별적 정책 영역의 대상으로 분산될 소지가 크다. 이 경우 이들 집단의 건강한 가족 관계와 친밀감, 소통 등을 지원하고,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언젠가 이룰 수도 있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인 가구를 가족의 일원으로 접근할 경우 포괄적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 과제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써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 시점에 더욱 필요한 가족 정책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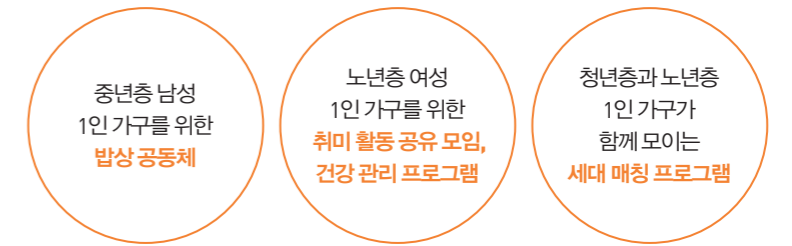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서울시 역시 1인 가구는 앞으로 한동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포괄적 가족 정책 측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나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서울시민의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향상되어야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1인 가구의 일상적인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은 서울시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자조 모임, 공동체, 커뮤니티의 지형과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

하여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을 구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모임과 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시 차원에서 이를 위한 시범 사업 선정과 운영, 1인 가구를 위한 가족 친화 마을 사업 등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달 체계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웃과 동네,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하는 가족 친화적 서울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사업의 비중 강화
- 미혼·미혼 청년층 1인 가구 대상 싱글 아카데미를 상설 프로그램으로 구축: 기존 의 예비 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세대 통합 프로그램, 1인 가구와 다른 가족의 매칭 프로그램, 세대 간 결연 프로그램 등 사업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도 1인 가구 대상 시범 사업 추진, 이를 위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사업 모델 개발 후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사업’을 소개합니다

관악구, 왜 1인 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관악구는 과거 서울대학교 및 고시촌 등으로 인해 3만여 명의 학생 및 학업, 고시, 기타 이유로 자취하는 20~30대 미혼 남녀의 거주 비율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난 및 월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와 강남·여의도 방향으로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미혼 직장인도 대거 유입돼 8만 4천여 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게 되어 서울 시내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 2014년 상반기 1인 가족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2015년 운영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은?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제	진행 내용
1인 가구 탐구생활 I	2015. 7.11.(토)	수납 탐구	좁은 공간 알차게 수납하기 - 옷장, 냉장고 깔끔 정리 팁 - 옷 개기 실습
		요리 탐구	쉽고 맛있는 자취 요리 만들기 - 레시피 및 영양 정보 안내 - 만능 소스, 양념장 만들기 - 만능 소스를 활용한 요리하기 (제육숙주볶음, 매운오징어볶음) - 다양한 응용 레시피 티칭
		생활 탐구	요리 시식 및 생활 정보 나누기 - 요리 시식 -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점 공유 - 자신이 알고 있는 1인 가구 생활
1인 가구 탐구생활 II	2015. 8.22.(토)	여유 탐구	내 방에서 카페 커피 마시기 - 핸드드립이란 무엇인가? -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 집에서 쉽게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생활 탐구	재활용품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 생활 속 재활용품의 종류 - 냅킨아트를 활용한 재활용 다육화분 만들기 - 세탁소 옷걸이의 활용법

운영 프로그램

2015년에는 '1인 가구 탐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공간 활용 및 꾸미기, 건강한 식생활, 여가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월에 진행한 '1인 가구 탐구생활 I'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 및 원하는 프로그램 주제를 조사한 결과 요리, 정리수납, 인테리어 등 정보 제공과 문화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주제를 요청하였고, 혼자 사는 데에 따른 정서적인 고갈 해소에 대한 욕구도 탐색되었다. 이에 8월에 실시한 '1인 가구 탐구생활 II'는 문화 체험과 동시에 1인 가구 간의 만남의 장을 유도하고자 여가 생활과 접목한 커피 만들기 및 인테리어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인 가구 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대상자 및 모집 방법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초기에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미혼 남녀'로 규정하였으나,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며 혼자 거주하는 50~60대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포착해 연령 제한 없이 모집하였다.

모집은 홍보지 배부를 통한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홍보로는 본 센터와 관악구청 홈페이지, 싱글 및 자취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에 홍보지를 게시하였고, 관악구청 및 각 주민센터 전광판과 고시촌 길거리 및 우편함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운영 현황

2015년 총 2건 5회기에 83명이 참석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인 가구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제	참여 인원
1인 가구 탐구생활 I	2015.7.11.(토)	수납 탐구	17명
		요리 탐구	18명
		생활 탐구	18명
1인 가구 탐구생활 II	2015.8.22.(토)	여유 탐구	15명
		생활 탐구	15명



4

다양한 가족,
해피 투게더!

01



싱글 맘·싱글 대디, 혼자여도 당당하다

02



엄마·아빠 자리를 대신한 할머니·할아버지

03



다문화가족, 편견 없이 살아가기

서울시가족은 지금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ASE 01

싱글 맘·싱글 대디, 혼자여도 당당하다

한 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이혼, 사망, 별거, 미혼모 등)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한 사람이 부모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가족 형태이다. 즉 싱글 맘과 싱글 대디가 가장으로서 가정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들을 '싱글 부모 가족'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싱글 부모 가족은 2000년 34.4%에서 2014년 50.2%까지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59.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가치관 변화 및 평균수명 상승 그리고 미혼, 이혼, 사별의 증가나 직업 등의 이유로 인한 분리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비율이 2014년 11%를 차지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상실하면서 싱글 맘과 싱글 대디가 되다 보니 소득 감소에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 수준이 그 이전보다 낮아진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이다. 그중에서도 대체로 싱글 맘 가족이 한국 평균보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싱글 맘의 절반은 가구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 가구로 나타나 경제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싱글 맘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여성 가구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실제 취업할 경우에도 단순 직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과중된다.

연도별 한 부모 가정 현황

연도별	서울 총가구 (A)	한 부모 가족 (B)	비율(B/A)	저소득 한 부모 가족(C)	비율(C/B)*100
2005	3,309,890	317,607	9.6%	23,160	7%
2006	3,408,049	330,474	9.7%	23,284	7%
2007	3,445,326	337,394	9.8%	28,018	8%
2008	3,469,950	342,930	9.9%	27,691	8%
2009	3,495,926	348,428	10.0%	27,994	8%
2010	3,504,297	351,848	10.0%	32,079	9%
2011	3,524,877	350,950	10.0%	33,748	10%
2012	3,535,741	360,878	10.2%	38,433	11%
2013	3,567,727	367,200	10.3%	39,750	11%
2014	3,599,692	373,594	10.4%	40,497	11%

출처: 한 부모 가구 비율(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13)

서울시 저소득 한 부모 가구 현황도 전국적인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서울시에서 보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는 2009년 기준 2만 8천 350세대로, 대부분의 한 부모 가족이 보호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한 부모 가족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를 물었을 때 '자녀 학비 지원'(51.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 양육비 지원'(29.8%), '저소득 한 부모 주거 지원'(11.9%) 등의 순이었다[○]. 결국 경제적인 보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시 한 부모 가족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역시 한 부모 가족이 지원을 원하는 서비스로는 32.4%의 응답자들이 '생계비 지원'이라고 답했고, '양육 및 학비 보조'가 27.8%, '임대 아파트 입주 및 분양 시 우선권 부여'가 10.9%로 나타났다. 결국, 싱글 맘과 싱글 대디의 지원 요구는 공통적으로 생계비 지원이 우선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싱글 맘의 '생계비 지원 희망'(36.5%)이 싱글 대디(23.6%)에 비해 다소 높았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싱글 대디 가족이다. 싱글 대디는 '가사(비) 서비스 지원'(11.2%),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다. 이들은 싱글 맘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한 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자녀를 키우는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 대인 관계, 독립적 생활을 해나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한다. 한쪽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딘가 문제 있는 가족으로 낙인찍히거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자녀들의 경우 스스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많이 힘들고 지친 한 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한다.

한 부모 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취약 가족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미혼 등 취약 가족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 복지 자금 대여, 주거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약한 한 부모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와 위기 가족 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이외에 서울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대표적으로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 한 부모 가족 심리·정서 지원, 양육 미혼모 자립 역량 강화, 한 부모 가족 통합 지원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한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와 '찾아가는 한 부모 가족 이해 교육', '한 부모 가족과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부모, 미혼모들을 위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미혼모 긴급 지원 등을 통한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확대,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 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및 수행 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5년 사업 안내

- 1 한 부모 가족 자립 지원 정보 제공
- 2 법적 권리 지원을 위한 '동행' 사업
- 3 한 부모 가족 주거 지원 사업
- 4 한 부모 자립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한 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 5 한 부모 학습 지원(좋은 부모를 위한 한 부모 계속 학습 지원 사업)
- 6 한 부모 리더 양성 및 조직 역량 강화 사업
- 7 찾아가는 한 부모 가족 이해 교육
- 8 한 부모 가족 모두 함께 대축제

또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서울가족학교^o가 실시됨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인식되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한 부모 가족 이해 교육'과 한 부모 당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한 '한 부모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o 2015년도는 10개 자치구(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함.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한 부모 가족 '해바라기 자조 모임'

이 프로그램은 유사 경험을 가진 한 부모 가족들 간의 만남을 통해 구성원 간에 서로를 이해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나눔 및 정보 교류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해바라기 자조 모임'



1 자조 문화 활동-소품 공예 2 자조 문화 활동-주얼리 만들기 3 교육 프로그램-집단 상담 4 교육 프로그램-부모 교육

또한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한 부모의 삶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 및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여가 생활 참여 기회나 사회 기여(나눔) 활동이 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가온누리, 우리가족'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을 지닌 '가온누리, 우리가족'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금을 받아 유아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집단 상담, 자녀 체험, 가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온누리 자조 모임'



1 가족 문화 체험 2 부모 교육 3 자녀 체험 활동 4 집단 상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부모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한부모가정사랑회는 한 부모 가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많이 알고, 이를 돕기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으로 심리치료, 부모 교육, 집단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사업도 해나가고 있으며, 1년에 두 번씩 정책 세미나 참여와 '한부모가정사랑', '한부모가정학' 두 종류의 학술지를 통해서 학문적인 정책 또한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현상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한 부모 가정은 이럴 것이다'라고 편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전체 한 부모 가정의 극소수일 뿐입니다. 물론 주변의 한 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화된 상태라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또는 이혼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한 부모'는 어딘가 문제가 있고, 사회 생활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부모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생각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므로 지역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에 만연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훨씬 빨리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강은진
블로그 기자단 10기

CASE 02

엄마·아빠 자리를 대신한 할머니·할아버지

조손 가족은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엄마·아빠의 자리를 대신한 할머니·할아버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 해체, 친부모의 사망,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모 역할 공백, 10대 미혼모 등의 복합적 요인들에 따른 결과이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일반 가구에서 조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0.1%에서 2013년 0.7%로 비율은 높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조손 가족 가구에 살고 있는 만 15세 미만 아동 수는 1995년 3천 385명에서 2010년 9천 544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5 '통계로 본 서울 가족의 모습'

○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손 가족의 전국 현황과 서울 현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조손 가족 가구 수가 높다. 통계로 본 서울 가족의 모습(2014.5)에 따르면 조손 가족(조부모+미혼 손자녀) 가구 수는 1995년 3천 875가구에서 2013년 2만 3천 344가구로 6배 증가, 2023년에는 4만 238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손 가족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손자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고, 부모의 질병 또는 사망, 부모의 가출 또는 실종, 부모의 파산이나 맞벌이 등이 있다. 또한 조손 가정은 아니지만 조부모가 손자녀 부모의 맞벌이를 이유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조손 가족은 일반 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 12배 이상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이다. 이들의 20%가 월 소득 40만 원 미만, 44%가 40만~80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최저생계비 이하였다. 즉 조손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59만 7천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손 가족은 기초 수급 가구 18.2%, 차상위 가구 8.5%를 차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월평균 소득 123만 원으로 생활하며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 가구보다 12배나 높다.

'식품 빈곤'과 양호하지 않은 주거 환경 등 불안을 느끼는 데 익숙해진 조손 가족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양부모 가족의 아동보다 인지 발달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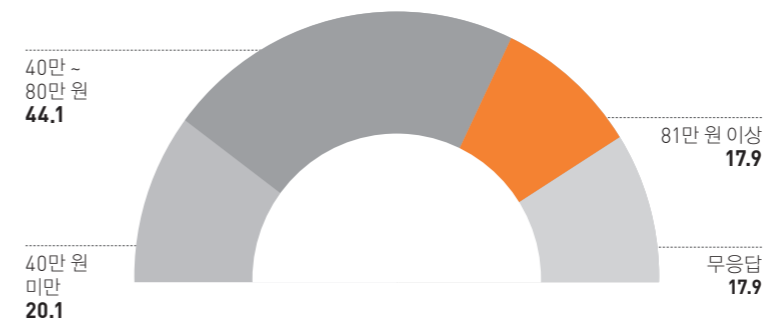
○ 국내 조손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59만 7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 가정은 1995년 3만 5천 194가구에서 2010년 6만 9천 175가구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20%가 월 소득 40만 원 미만, 44%가 40만~80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최저생계비 이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0 조손가정 1만 2천 750가구 조사

○ 중앙일보 2010/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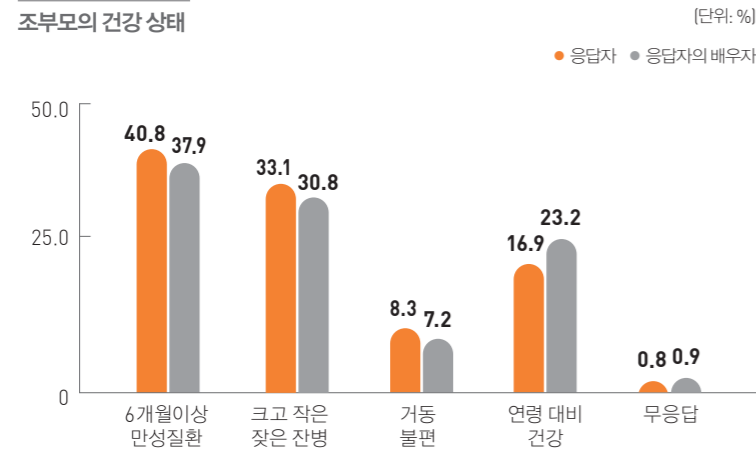
조손 가정 월 소득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조손 가정 1만 2750가구 조사
출처: 조손 가정 급증...가난도 대물림, 중앙일보 2010/12/15

조부모의 경우 '노인기'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조부모의 연령이 높아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고,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답이 73.9%에 달하고 있다.



자료: 2010 조손 가족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조손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부모의 건강이 손자녀를 돌볼 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로 가장 많고, 크고 작은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에 달했다. 반면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경향은 응답자의 배우자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가 응답 가구의 68.7%였다. 그중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37.9%, '잔병치레가 많은 배우자'가 30.8%였으며, '건강하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하다.

출처: 2010년 조손 가족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10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지만, 성장기 손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손자녀도 고령의 조부모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이에 손자녀는 '가족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조손 가족의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생활에 대해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조부모와의 생활을 위한 희망 사항에도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15.3%이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사항에 학교 내의 차별 근절을 바란다는 응답이 13.4%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조손 가족의 건강 증진과 유대감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펼쳐

조손 가족을 새롭게 증가하는 대안 가족 유형으로 볼 때, 손자녀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손자녀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조손 가족 조부모의 노년기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조손 가족과 관련한 현행 제반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조손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초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춰 복지 급여 지원을 받은 조손 가정은 2011년 현재 406가구에 불과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긴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조손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손 가족의 기능 강화 사업을 하고 있다. 손자녀의 학습 정서 지원, 조부모 생활 가사 지원, 조손 가족 교육 문화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조손 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출처: 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4_03_02_02.jsp

조손 가정 지원 서비스 현황

방문 서비스

	대상	내용
학습 정서	손자녀	배움 지도서를 파견해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
생활 가사	조부모	키움 보듬이를 파견해 활동 보조, 생활 가사 지원

직접 서비스

	대상	내용
가족 심리	손자녀·조부모	심리 정서상 어려움이 판정된 가정 지원
가족 문화	손자녀·조부모	문화생활 및 체험이 어려운 가정 지원
조부모 건강	조부모	건강검진이 필요한 조부모에 의료 기관·보건소 연계 서비스 지원

연계 서비스

	대상	내용
장학사업	손자녀	학업 수행이 어려운 손자녀에 장학재단과 연계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조손 가정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비용 지원

출처: www.segye.com/content/html/2013/02/26/20130226024095.html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초구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 손주 돌보미 서비스

목적

서초구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의 안녕에 기여함

도입 시기

2011년

모집 대상

- 서초구에 거주하며 손주가 2명 이상(한 가정 기준)이고, 막내 손주가 15개월 이하 인 친조모 또는 외조모
- 손주 가정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 거주)하여야 함
- 실제 서초구 내에서 손주를 돌봐야 함(모니터링 실시)
-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 지원과 손주 돌보미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중복 신청 불가)

손주 돌보미 교육

- 교육 신청 후, 대기 순서에 따라 정해진 교육 기간에 참여하여 25시간 양성 교육을 수료하여야 손주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음
- 교육 신청은 둘째 손주(또는 그 이상)가 태어날 때부터 가능함
- 교육 만족도 5점 만점에 4.6점 이상이어야 함
- 교육 내용(영유아 이유식, 식습관 지도, 영유아 돌봄 실제, 영유아 응급처치 지도, 영유아 오감 발달 놀이 지도, 영재 종이접기 실습 등)

손주 돌보미 지원

손주 돌보미 시간 중 한 달에 40시간 지원(지원금: 시간당 6천 원)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은 「서초구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에 준함

CASE 03

다문화가족,
편견 없이 살아가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 주민으로, 그중 다문화 가족은 2014년 기준으로 79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국내 외국 인력 수요 증가와 도시 위상 제고로 인해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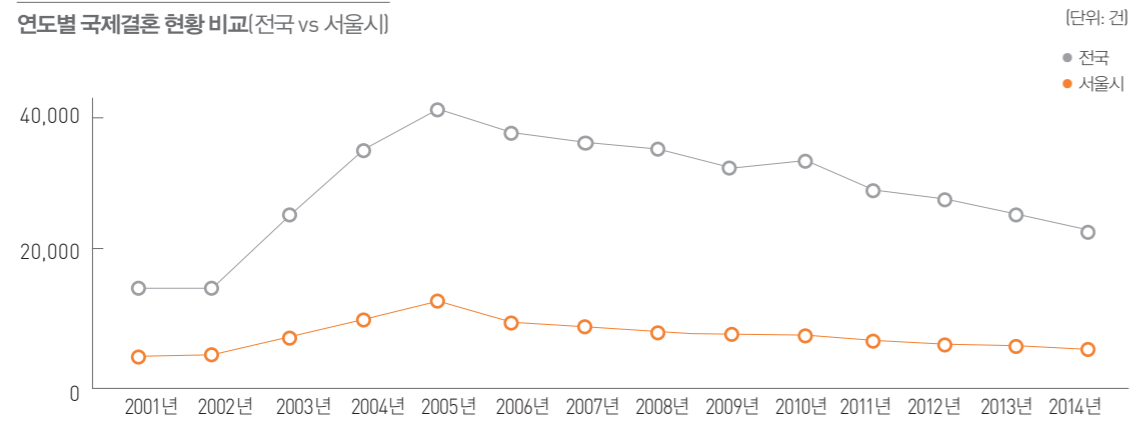
2001~2014년 전체 국제결혼 건수 9만 9천 915건 중 국제결혼이 가장 많았던 서울시 자치구는 영등포구(6천 306건), 구로구(5천 658건), 관악구(5천 578건), 송파구(4천 837건), 강서구(4천 793건)의 순이었다. 특히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각각 17.51%, 12.49%로 전국 1위, 3위를 차지한 지역이다^o.

^o 서울시 공공데이터

서울시 국제결혼, 절반 이상 중국 출신

서울시의 국제결혼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국가는 전체 중 약 51%로 절반 이상이 되는 중국(5만 1천 740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1만 1천 468건, 미국 9천 606건, 베트남 8천 944건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반의 국제결혼이 동남아 국가 출신의 여성 배우자가 많은 데 반해서,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비교(전국 vs 서울시)



다문화가족, 부부간·가족간 갈등 있다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과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결혼 동기의 차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부부간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품고 생활한다. 2013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5천 559건,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3천 223건,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2천 336건에 달한다. 그중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2천 272건인데 그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1천 487건,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785건에 이른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5 '통계로 본 서울 가족의 모습'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도 크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양육·교육비 지출로 나타나,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의 소득 수준이 소비에 비해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거주 결혼 이민자는 전국 대비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긴 노동시간, 자녀 양육, 가사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 또한 이들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이며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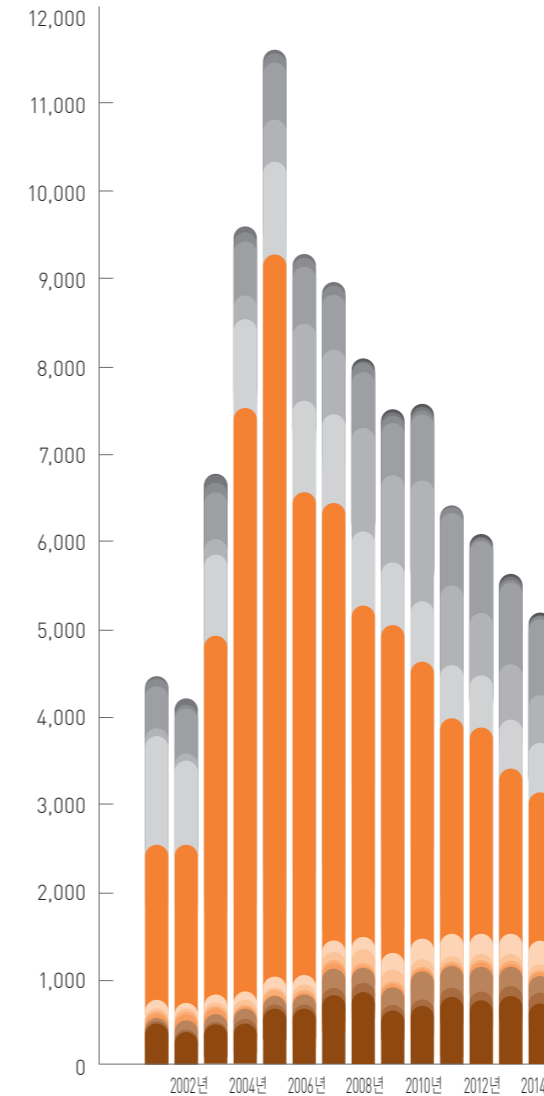
○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2015

서울시 연도별 + 국가별 국제결혼 현황(2001~2004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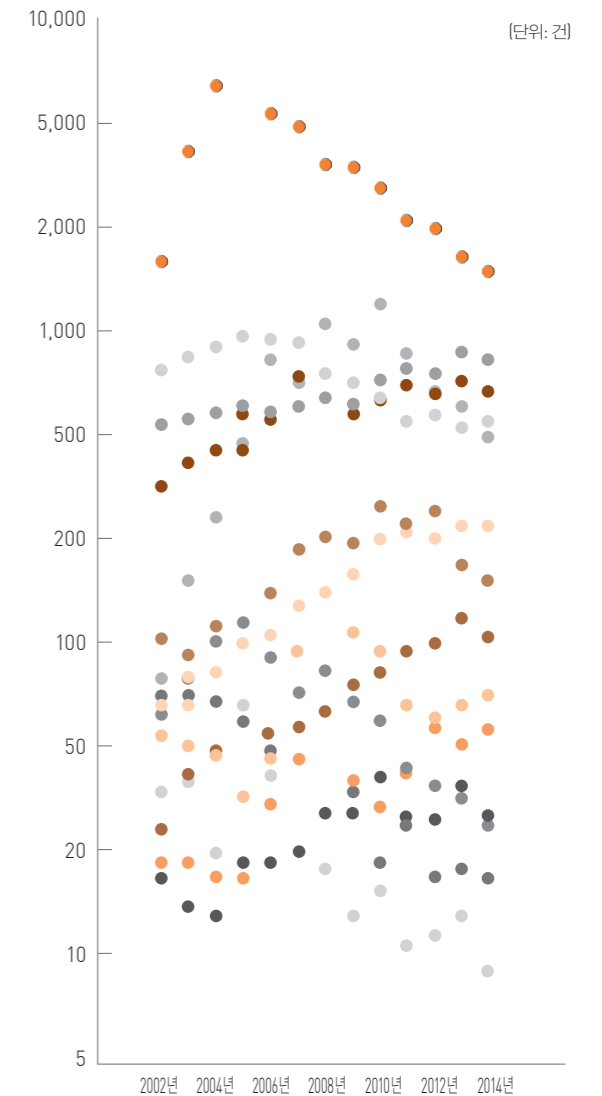
- 독일
- 몽고
- 베트남
- 중국
- 태국
- 프랑스
- 호주
- 러시아
- 미국
- 일본
- 캐나다
- 파키스탄
- 필리핀
- 기타

서울시 연도별 + 국가별, 국제결혼 추이



서울시 국제결혼, 연도별 국가 추이

(단위: 건)



출처: 통계청, 서울시 공공데이터, e-나라지표 http://contents.newsjeil.ly/issue/tableau_international_marriage1/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들 아동의 유형은 세분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 새터민 가정의 아동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아동은 자신의 모국인 한국 사회에서 비다문화 가족 및 아동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중 문화를 경험하며 받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 과정에서 아동기 발달 과업에 따른 부담감 및 문화 적응에 따른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36.2%로 78.3%인 유럽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비율도 2009년 36.4%에서 2012년 41.2%로 더욱 악화되었다^o.

그러나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에 전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고, 전적 반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울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다문화 수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o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정부 각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집 중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 가족기본계획에서는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평등한 가족 문화 구축 및 사회적 여건 조성, 다문화 가족 자녀 취학 및 학교생활 지원, 다문화 이해 제고 중점 추진, 취업 등 자립 기반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등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증진을 강화하여 시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 및 문화와 함께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종합 정책을 펼치고 있다^o.

다문화가족종합정보센터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에게 위기 상담 및 긴급 지원, 한국 생활 정보 제공, 생활 통역과 3자 통화 지원 서비스를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o.

^o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2013-2017

^o 2014 다누리콜센터 사업 보고서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서는 다양성 교육 관련 자료들을 다양한 언어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문화 관련 현장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갖춘 전문 강사를 양성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함

특히 이주 여성이 직접 상담을 지원하는 등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그 효과도 매우 크다.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나라별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소개 자료와 이중 언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 **가족** -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 **성 평등** - 배우자 부부 교육, 예비 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등
- **인권** - 다문화 이해 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
- **사회 통합** - 취업 기초 소양 교육, 취업 훈련 전문 기관 연계,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 등
- **상담** - 가족 개인 집단 상담, 사례 관리, 위기 가족 긴급 지원 등
- **홍보 및 자원 연계** -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 **특성화 사업**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시범 운영 시), 다문화 가족 생활 지도사 사업(시범 운영 시), 지자체 한국어 교육(위탁 시)

전문가 제언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기정 백석대학교 교수

서울시가 다양한 가족 증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적 사업들은 대상, 내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양적·질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균형성을 갖고 있다.

실제 정책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정상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견이 존재해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은 위축과 소외감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이 선도적인 트렌드인 만큼 문화와 가족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 환경과 개인의 가치관 등이 맞물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소외 가족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취약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 지원과 시민 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실제 정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에 따른 포괄적 가족 정책인 건강 가정 기본 계획, 한 부모 가족 기본 계획, 다문화 가족 기본 계획,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 계획 등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가족은 더욱 다양화할 것이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서울시에서는 '평등'과 '인권'의 이념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는 과제 수행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그 사업들에 수월하게 접근함으로써 체감형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 단체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전 시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인식 개선교육은 성, 인종, 민족,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문화와 다른 가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기능을 한다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교육을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위한 교육의 강화, 표준화된 교과 과정과 교구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정례화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생애 주기별로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개인 존중 및 인권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전달체계로 해 다양한 가족 이해 강사, 다문화 이해 강사, 한부모 이해 강사 등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청년 1인 가족, 노인 1인 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이를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서울형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언어와 음식 문제인데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응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춘화 강사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센터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와 아빠가 함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빠가 밤에 일하는 터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센터의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된장·고추장 만들기 와 김치 담그기였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언어와 음식 문제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응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이주 여성을 위한 금천구 센터의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하면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뒤 이주 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의 경우 가장 많이 겪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변과 교류하기가 어려워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의 낯선 시선도 한국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금천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감을



전종미 센터장(왼쪽), 김춘화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오른쪽)

얻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 양육에 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곤 하는데,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고맙게도 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줘서 지금은 차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점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는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인식 개선 교육은 일반 가정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전종미 센터장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 교육, 자조 모임 육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다문화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들의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에 비해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다문화 가정을 꼭 집어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던 초창기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통로로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한 만큼 일종의 낙인



취재. 최웅석
 블로그 기자단 10기

효과가 될 수도 있는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교육 효과가 가장 큰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새로 4학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작년엔 교육을 이수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학교 측의 협조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 중입니다. 인식 개선 교육은 일반 가정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금나래 가족 문화 페스티벌'은 금천구의 다문화 가족과 일반 지역민들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천구청 광장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다문화 요리 체험, 놀이 체험 등을 통한 건전한 가족 체험의 장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통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합니다



“ 온 식구가 가족봉사단 활동은 물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하시네요. 저희 가족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

'가족봉사단'은 지금 고3인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이 함께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산에 올라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환경 정화 활동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또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독거노인을 돕는 활동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어르신들과 편하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특히 5년째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멘토링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할수록 이제는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은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봉사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지내게 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주 5일제 실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5일제가 되면서 서예나 취미 활동을 부부가 함께하는 등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봉사단 활동도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가족봉사단 활동이 없는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트레킹을 가거나 아이들과 보고 싶은 영화를



취재. 강은진
블로그 기자단 10기

보는 등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가족봉사단 활동은 물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하시네요. 저희 가족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아이들 통해서 메모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메모를 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길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으니 더욱 좋았어요.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좋겠고, 봉사를 통해 건강한 가정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보이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파급 효과는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길어진 부부만의 삶,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01



길어진 노년, 부부 둘이사는 기간이 늘어난다

02



100세 시대를 함께하는 부부

03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가족 교육

서울시가족은 지금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즉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 둘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혼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부부간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CASE 01

길어진 노년, 부부 둘이 사는 기간이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년기도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어진 노년기는 부부끼리만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자녀의 독립 이후 부부 둘만의 삶을 사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자녀를 적게 낳는 추세를 보면, 자녀 양육과 독립 이후 부부만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73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7.1%를 차지하면서 서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장래 인구 추계(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추세를 기준으로 2016년 노인 인구(123만 6천 명)가 유소년 인구(120만 1천 명)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4.6%(148만 1천 명)로 증가하여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7년 후인 202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208만 5천 명)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서울시 가족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가족 구조 중 1인 혹은 2인 가구의 비중은 2000~2030년에 144만 3천 가구가 증가하는데, 주원인은 다름 아닌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분석된다. 즉, 60세 이상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많은 비중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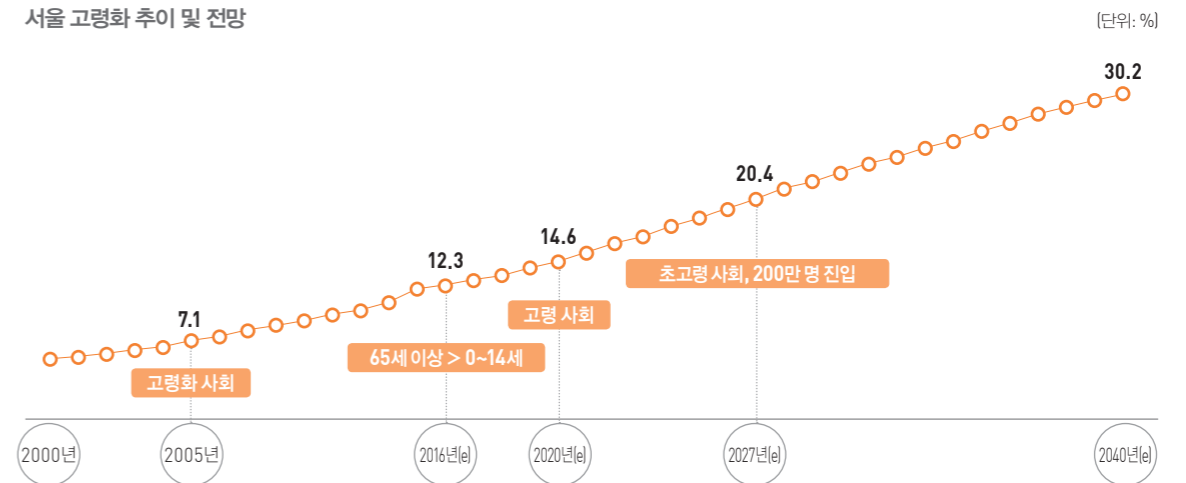
1~2인 가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00년 22.9%에서 2015년 31.9%로 증가해 2030년에는 47.6%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향후 1~2인 가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5~2030년에 30~50대는 6만 1천 가구 증가에 그치지만, 60세 이상은 57만 7천 가구나 증가해 이 기간 전체 1~2인 가구 증가(59만 2천 가구)의 대부분(97.4%)을 차지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3-09(74호)
'서울 2027년 초고령 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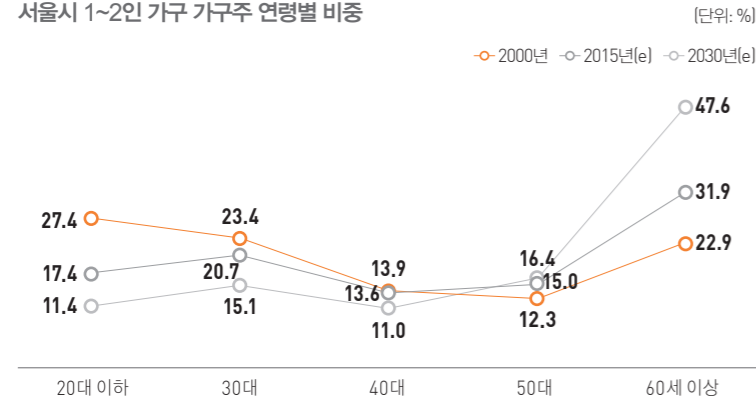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5-04(93호)
'가족 구조 및 부양 변화'

서울 고령화 추이 및 전망



출처: 서울시 '인구 통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서울시 1~2인 가구 가구주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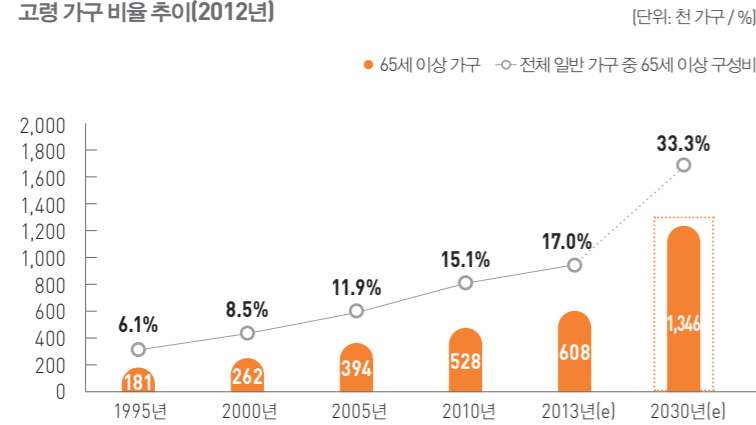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 인구 추계

고령자 가구 비율의 증가세도 노년기 부부 가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고령 가구 비율의 상승세가 부각되는데 이때 고령 가구 중 상당 비율이 부부라고 추론할 때, 노년기 부부 형태가 전체 가구에 서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또한 60세 이상 가구주 중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비율이 54.8%이다. 결과적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거주 형태 중 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26.5%를 차지한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5-04(93호) '가족 구조 및 부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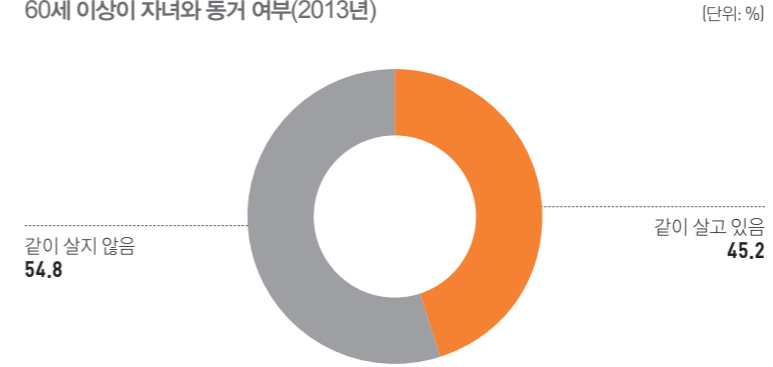
고령 가구 비율 추이(2012년)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87호) '통계로 본 서울 사람들의 삶'

2013년 60세 이상 가구주(부부, 1인 가구 포함) 중 54.8%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 따로 사는 이유 중에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5.3%),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60세 이상이 자녀와 동거 여부(2013년)



출처: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8(85호)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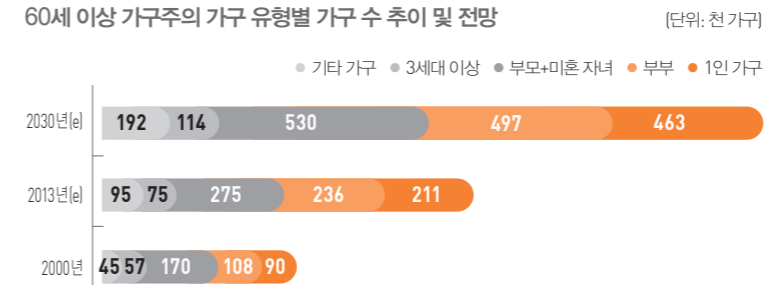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 부부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20만 8천 60가구로 절반(49.2%)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의 부부 가구는 10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

2013년 60세 이상 가구 중 홀로 사는 가구 및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절반을 차지했다(50.2%). 60세 이상 가구 중 부부 가구는 2.2배 증가해 이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중 절반 정도인 50.2%는 노부부만 살거나 홀로 살고 있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1-08(50호) '부부 등 소핵가족 늘어나'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8(85호)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유형별 가구 수 추이 및 전망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e는 추정치)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부부끼리만 사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가족 관계의 핵심은 부부간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 돌봄 지원 방안 연구(2012, 여성가족부)에서 100세 사회 가족생활을 전망해놓은 내용을 보면, 100세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부부 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한 부부 관계 중심의 신체적·정서적 의존과 여가·가사의 공유가 커질 것이므로 부부간에 서로 돌보고 부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를 돌보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녀가 독립한 후 '빈 둥우리' 기간으로 부부끼리 사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부부간의 관계가 가족 관계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를 노년기에 이르러 갑자기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기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CASE 02

100세 시대를 함께하는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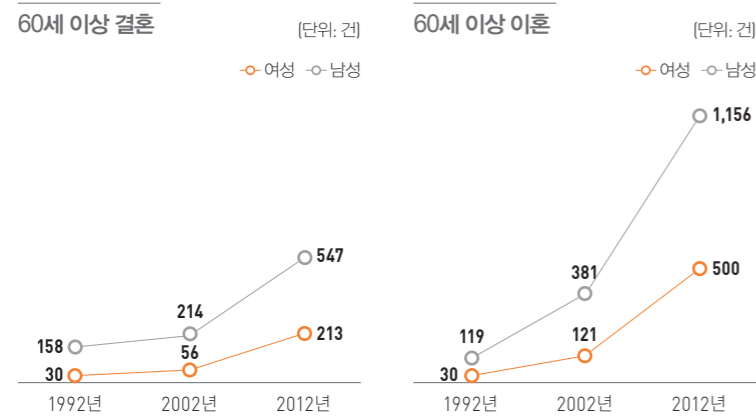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더 늘어나는 현상은 다양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황혼 이혼, 즉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길어진 노년기를 고려할 때, 부부간 갈등을 계속 갖고 오랜 시간을 살아가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요구가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사회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황혼 이혼뿐 아니라 황혼 결혼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남성의 결혼은 1992년 158건에서 2012년 547건으로 20년 새 3.5배 증가했고 65세 이상 여성의 결혼은 같은 기간 30건에서 213건으로 7.1배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남성의 이혼은 1992년 119건에서 2012년 1천 156건으로 20년 새 9.7배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여성의 이혼은 같은 기간 30건에서 500건으로 20년 새 16.7배나 증가하였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3-09(74호)
'서울 2027년 초고령 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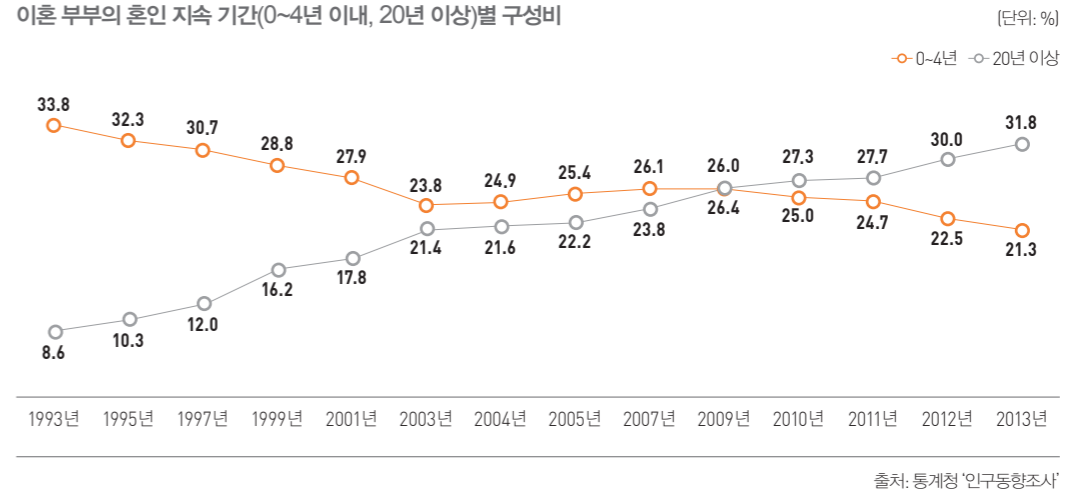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및 이혼 통계)'

특히 황혼 이혼의 증가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연령에서의 이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길어진 노년기에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 50세 이상 이혼이 증가했으며 2013년 평균 이혼 연령의 경우 남자는 47.4세, 여자는 44.2세이다. 특히 남자의 이혼에서 60세 이상 남성 이혼은 20년 새 9.0배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여성 이혼은 20년 새 13.9배나 증가하였다. 2013년 이혼 당시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구성비가 31.8%로 가장 높았다.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황혼 이혼)의 이혼 비율이 1993년에는 8.6%로 가장 낮았으나 2013년에는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는 신혼 이혼을 추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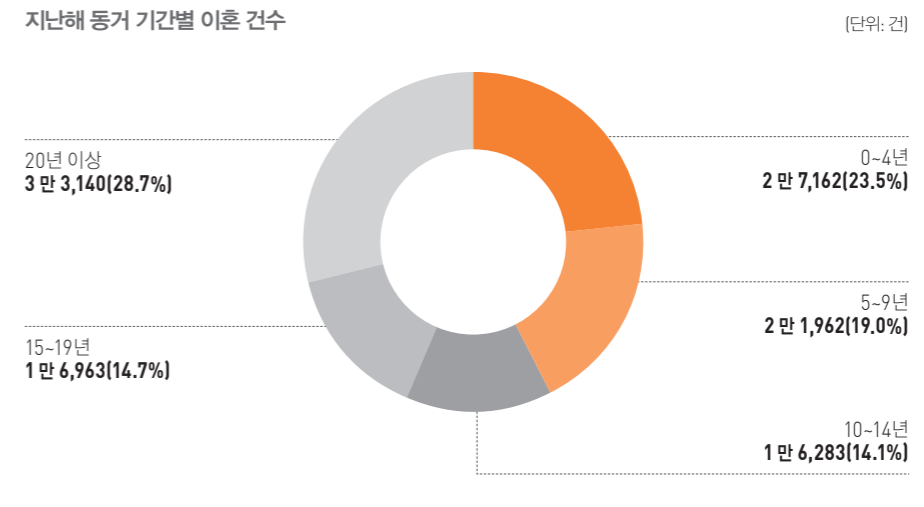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6(82호)
'통계로 본 서울의 혼인 이혼 현황'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0~4년 이내, 20년 이상)별 구성비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 이혼 비율이 역대 최대라는 최근 발표는 많은 부부에게 결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의 28.7%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이라는 얘기가.

지난해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



자료: (2015 사법연감)
출처: "황혼 이혼? 나는 이래서 선택했다" "애들도 다 컸으니..." 결혼의 미래를 말한다. 한국일보 2015/11/06

서울시의 2013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47.9%, 가족 문제 16.1%, 경제 문제 12.7% 등의 순인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된 이혼 사유인 부부간 성격 차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부부간 성격 차이는 친밀감, 상호작용, 응집성 등 가족 관계 차원에서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부부 관계의 질 자체가 결혼 생활의 유지 혹은 중단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달리 말해 부부간 정서적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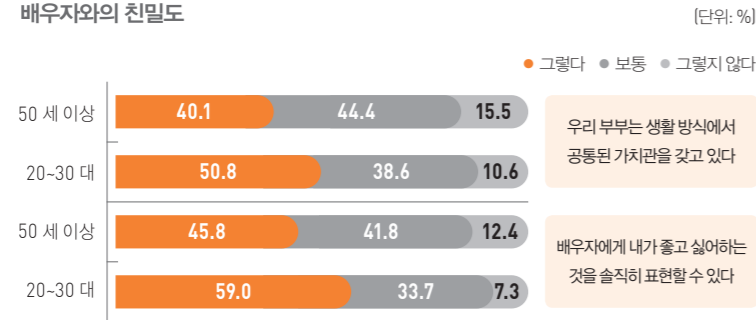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기혼자 중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20~30대 젊은 층보다 배우자에 대한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기혼자들은 20~30대보다 부부 공통 가치관은 낮고, 배우자에게 솔직한 의사 표현은 못 하고 있으며, 고령층 가구에서는 가사 노동에 대한 아내들의 부담이 젊은 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6(82호) '통계로 본 서울의 혼인 이혼 현황'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2-05(59호) '서울 부부 저화상'

배우자와의 친밀도



우리 부부는 생활 방식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배우자에게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1년 60세 이상 연령층은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중 배우자와 고민을 상담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25.2%이고,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5%로 나타났다[○].

즉, 현실적으로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부부간 정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중단하는 황혼 이혼이 증가했다. 동시에, 노후에도 여전히 배우자는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이기를 기대하는 현상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길어진 노후의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노년기의 부부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강조점을 고려할 때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부부간 관계를 건강하고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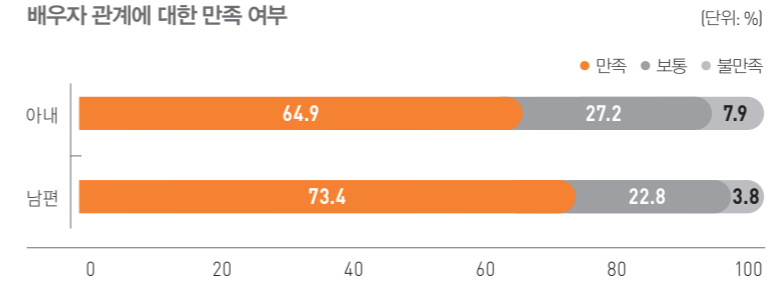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3-09(74호) '서울 2027년 초고령 사회 진입'

서울시 부부의 경우,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부부 중 '아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편 비율은 73.4%인 반면, 아내는 64.9%만이 '남편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은 남편이 아내보다 8.5%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률은 4.1% 낮았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1-05(47호) '배우자 만족률 남편 더 높아'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



그러나 여전히 부부는 서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 1순위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중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 묻은 결과, 아내와 상담한다는 남편은 85.2%, 남편과 상담한다는 아내는 80.3%로 나타났다. 다만 아내는 어머니, 자녀, 형제자매와 고민 상담한다는 응답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100세 시대를 친밀하고 행복하게, 오래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1-05(47호) '배우자 만족률 남편 더 높아'

CASE 03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가족 교육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부부간 애정과 성적 역할, 소통과 상호 작용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례적으로 가족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출발하는 사회적 제도로, 부부간의 관계가 가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이러한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는 따라 나머지 가족의 기능인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스트레스 완충 기능, 소속감 부여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 가족 간 소통이 관건이다!

부부가 화목하고 유대 관계가 견고하며 경제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모 역할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 기능도 잘 수행되어 행복한 가족생활을 한다. 반면 부부가 불화하고 경제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역할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 속도가 세대 간, 성별 간에 차이를 보여 노년층은 전통적 가족관을, 중·장년층은 도구적

가족관을, 젊은 층은 개인주의적 가족관을 보인다. 또 남성은 전통적인 도구적 가족관을 가진 반면 여성은 양성평등적 개인주의적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 부모-자녀 간, 부부간에 불일치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부부간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역할 분담은 특히 여성 입장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공평함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는 세대의 경우, 가정에서 배우자 간 불평등한 역할 분담은 부부간 소통과 정서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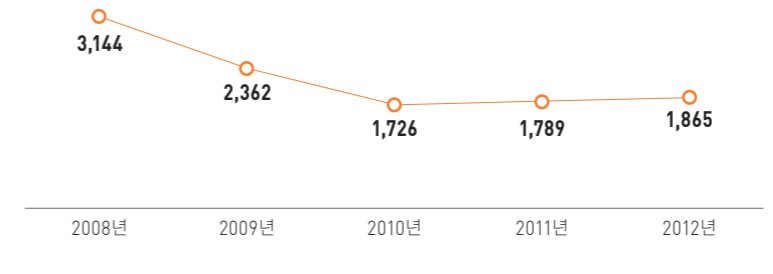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가사 분담은 여전히 부인 몫으로 남아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률은 남성 70.9%에 이르지만 여성은 57.2%로 나타났다. 2012년 가사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44.5%(13세 이상 취업자 응답)로 나타난 반면, 실제 맞벌이 가정에서조차도 공평 분담률은 21.9%에 불과하고, 4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부인이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성(58.6%)이 남성(41.6%)보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통계 웹진 2014-05(81호) '통계로 본 서울 가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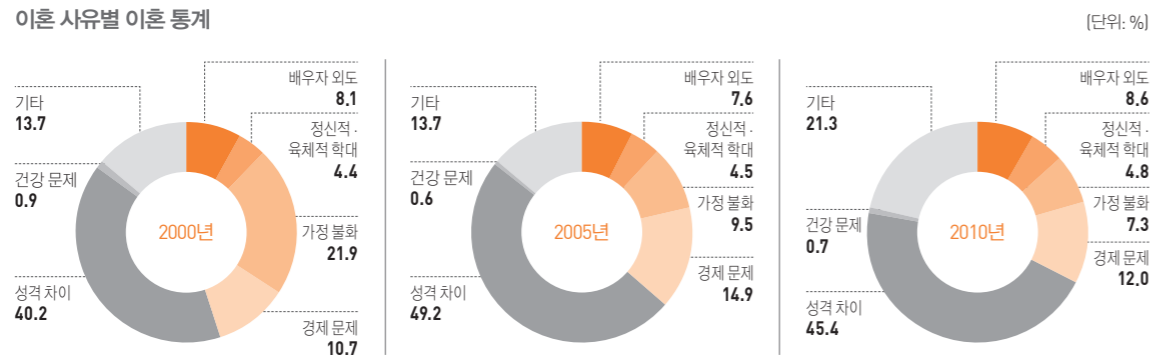
특히 생애 주기가 달라지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족 관계도 변화되고 있으며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층은 과거에 비해 장기간 개인적인 여러 문제(건강 약화와 질병의 고통, 경제력 약화, 역할의 상실, 배우자 사별과 외로움, 의존성의 증가, 죽음의 두려움 등)에 대처해야 하는 생활의 과제를 갖게 된다.

가정 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자료



출처: 통계청. (2000, 2005, 2010)

또한 부부 관계에서 우애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부부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소통이 중시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부 갈등과 가정불화, 폭력, 이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에 따른 문제로 가족의 중심축인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 부모 역할도 어려워지기 쉽다. 즉 부모의 문제가 자녀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대로 전수되는 가족 스트레스는 가족생활 주기의 전환기에 상승 작용하여 가족의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맞춤형 가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과 부부 교육, 세대 통합 교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10대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 별거하거나 이혼한 당사자와 자녀들, 배우자와 사별한 가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노년 기 부부, 고부들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과 부부 역할 및 스트레스 관리, 가정 경영과 가계 재무 관리, 효율적인 시간 관리, 관계 기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 보고에서 건강한 가족은 부부간, 부모-자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가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또 부모-자녀 간에 소통과 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대화하면 서로의 정보, 생각, 감정을 나눔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여 친밀감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반을 두고 갈등 문제를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협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 감으로써 행복한 가족을 만들게 될 것이다.

소통도 능력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혼 생활과 부모 역할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개발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사랑과 결혼, 부모 역할에 환상을 갖거나 준비되지 않은 채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또 부모-자녀 간에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의견 차이와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실패한 소통, 그들의 특징은?

- 양방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 말하기로 잔소리, 설득, 통제
-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불평과 불만을 표시
-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인정하지도, 공감하지도 않아 소통하지 못해 자주 다툼
- 배우자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난 일을 들추고 배우자를 공격하거나 비난 또는 회피와 방어를 함으로써 문제를 확대시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
- 사소한 부부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이성적으로 대처하거나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음주나 폭력을 사용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만성적 갈등을 겪게 됨

결혼 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도 젊은 시절부터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감정 교류가 되지 않는 정서적 이혼 상태의 부부가 많아진 데서 기인한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놀려 지내고 상처받은 아내들이 노년에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폭발하여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에 부부가 황혼까지 평생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퇴 후 뒤늦게 부부 관계를 돌려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점검하여 일 중심 대화나 통제식·다툼식 대화에서 탈피하고 배우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깨우쳐 공감적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SUMMARY

부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진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현재,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는 부부만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만큼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 관계의 핵심이 부부간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도출된다.

그런데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는 단지 노년기에 이르러 갑자기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기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황혼 이혼의 증가는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연령에서의 이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후가 길어지면 부부간 정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중단하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후에도 여전히 배우자는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부부간 관계를 건강하고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 관계가 우애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부부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소통이 중시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부부 갈등과 가정불화, 폭력, 이혼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부모-자녀 간에 소통과 공감이가 잘되는 효율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정보, 생각, 감정을 나눔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여 친밀감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관련 정책 및 사업 소개

가족 관계 증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시행 중

100세 시대로 가는 현재 시점에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과 가족 간 소통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서울시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정책과제: 가족교육·상담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자녀 연령별 주요 시기에 부모교육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2016년)

구분	추진 방법	비고
영유아	- 입소 상담시 '부모교육 참여의향서' 작성, 필수화 안 내 및 참여 독려 -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연계 집합교육 실시(2월) 및 상설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매월 1~2회)	국공립 우선 시행 → 민간 확산
초등학생	- '학교 공개수업',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활용, 부모교육 안내 및 참여 독려 -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활성화 추진	교육청 협의
직장 결혼 적령기	- 자녀와의 독립, 결혼 준비 등을 예비부부교실 및 베이비머 교육시 내용 포함 - 시민청 등 작은 결혼식 추진시 교육 이수자 가점 부여	

- 부모 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시 부모교육 의무화
- 선정 대상에게 부모교육 연간 일정 안내 참여 독려, 재평가시 교육이수 반영
- 부부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무료 가족상담' 실시
- 1:1 상담, 가족상담 등 건강가정지원센터(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를 통한 무료 가족상담 실시
- 의료·법률 등 더 전문적 상담 필요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확대
- 동 주민센터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초기 상담 제공 및 관련 프로그램 안내
- '온라인 상담' 개설로 쉽고 빠른 상담 제공
- 부부·자녀문제, 고부갈등 등 고민 상담은 필요하나, 상담 방문을 꺼리거나 어려운 시민 위해 패밀리사이트 내 온라인 상담 코너 운영예정(2016년)

2015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실시 구	프로그램명	내용
강남구	오감놀이지도사	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 내 재능 환원
	동고동락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신체 놀이 활동 및 스포츠 교실
	장애통합지원사업	장애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지원
강동구	좋은 엄마 되기 학교	자녀 연령대에 따른 부모의 역할 학교
	동행 프로젝트	한부모 가족 학습 지원 멘토링 사업
강북구	함께하는 외갓집 문화체험	문화 체험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 친밀도 증진 프로그램
	신나는 영어캠프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 감소 및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중도장애인 가족 통합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강서구	사이언스 아카데미	대학 동아리와 초등학생 연계 과학 실험 및 체험
	내 생애 가장 특별한 결혼식	일반 부부 및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 및 허니문 투어 지원
	부자가 함께하는 스포츠 데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프리테니스(탁구와 테니스 결합) 활동
	치매가족 지원사업	강서구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부양가족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 지원
관악구	아이와 소통하며 성장하기	학령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요리보고 세계보고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활동가 양성 지역 내 재능 환원
	참 잘했어요- 짹짹	다문화 가족 미취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사업
	1인 가구 탐구생활	1인 가구 대상으로 종합 정보 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광진구	슈퍼맘★슈퍼대디를 위한 가화만사성	맞벌이 가족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진행
	So!통(通)하는 부모교육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우리가족이 키우는 오감만족 행복나무	초등학령기 아동의 오감 발달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하늘여행이야기	풍요로운 삶의 모색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아자! 프렌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구로구	늘품가족아카데미 시즌 3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자녀를 위한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
	부모성장교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
	천하무적 부자야구단	아들-아빠가 월 2회 토요일 야구 강습 및 훈련
금천구	명품부모스쿨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변화 도모를 위한 교육
	금나래 행복가족 사생대회	금천구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주제로 그림 그리는 기회 제공
	입양가족 '사랑은 가족을 타고'	입양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활동
노원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 교육 진행
	아빠는 셰프	부-자녀 친밀감 향상을 위한 요리 활동 및 가족 니들이
	우리가족 날개달기	한부모 여성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봉구	꽃보다 손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대상 육아 정보 제공 교육
	도봉 나눔 공동체	가족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환원형 공동체 활동
	한부모가족 채움UP! 행복UP!	한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진행
동대문구	우리아빠, 엄마가 달라졌어요	생애주기별 및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부모 교육
	가족과 함께 느끼게 걷기	경희대학교 캠퍼스를 가족과 느끼게 걸으며 체험 및 문화 관람
	동대문구 행복동 1번지	가족 품앗이와 가족 봉사단이 이웃 돌봄을 실천하는 행복마을 사업
동작구	희망으로 피어나는 가족애 가족사랑 캠프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동작부모학교	자녀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
	악동(樂童)들의 두드림	초등학생 대상의 난타 활동(난타 공연 관련, 무대 활동)
마포구	행복한 조부모 육아학교	교육 및 기술 제공하며 인형극단 결성을 통한 지역사회 재능 환원
	학습도우미 파견(멘토링)	조손·한부모 가정에 학습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파견
	2015 가정경영아카데미	학부모 대상 자녀 양육 및 대화법 교육
마포구	2015 가족사랑의 날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가족 레크리에이션 및 원예 활동 진행
	2015 손주를 돌보는 가장 완벽한 방법	조부모의 손주 돌봄 통합 프로그램

서대문구	동서남북 문학투어 다다익선(多多益善)	부모-자녀 대상 체험형 문학 프로그램
	빠담빠담 역사기행	부모-자녀 대상 역사 교육 및 탐방 활동
	직장맘 행복찾기	직장맘 대상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서초구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
	2015 서초가족 家家호호^^ 한마음축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
	아빠 손잡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힐링캠프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 대상 캠프 프로그램
성동구	부부사랑레시피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캠프
	가족사랑 심리운동	가족 단위의 심리 놀이 활동
	가족, 영화愛 빠지다	전 세대 관람 가족 영화제
	부자(父子)의 취향	아버지-자녀 간 교육, 문화, 상담, 돌봄의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가사, 민사, 형사 전반 법률 상담 진행
	멋있는 가족의 맛있는 이야기	가족 요리 심리 프로그램
성북구	행복한 부모교육	아동 청소년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족 무비데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날
	토요편편스쿨	고려대사회봉사단 연계를 통한 자녀 학습 및 정서 지원
	꿈-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진로 인성 프로그램
송파구	러브인 패밀리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가 걷다, 아이가 웃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아빠가 만들어가는 가족이야기	부-자 신체 놀이를 통한 돌봄 프로그램
	2015 수용자 가족사랑 캠프 '빛나는 그 이름, 가족'	수용자의 심리적·정서적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한 글자로 행복해지기 프로젝트 '나, 말, 씬, 벗'	한부모 가족 자조모임

양천구	조부모교육 '나는 yo! 신세대'	조부모 대상 자녀 돌봄 양육 기술 및 양육 기술 교육
	'우리가족의 특별한Days'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 사업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작소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달콤! 유쾌! 우리는 슈가패밀리	맞벌이 가족 대상 교육,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영등포구	건강한 가정경제, 우리집부자 만들기!	부모 경제 교육으로 부모 대상 가정 경영 재무 교육
	부부의날 기념 '잉꼬부부 Day'	가정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진행
용산구	사랑이 커지는 망치소리	저소득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교육 및 목공예 활동, 가족 나들이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 자조모임'	아버지 대상 다양한(아동 발달, 양육 방법 등) 교육
	재능 나눔 사업 꼭꼭 숨어 있는 우리아이 명품감성 찾아내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 진행 맞벌이 및 한부모 취업 가정 자녀의 감성 발달(오감 발달) 프로그램
은평구	건강한 개(家), 행복한 개(家)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의 집단 미술 치료 및 외부 체험 활동
	육아의 달인 우리엄마아빠가 최고야	부모-자녀의 오감놀이 및 부모 코칭 교육
	우리가족 사랑하기 좋은 날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
종로구	하하, 신나는 아-자 놀이토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행복한 조부모되기	조부모 대상 양육 방법 교육
	종로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출산 장려 캠페인과 가족愛(애) 체험 마당
	의지 나눔 직업이야기	아동·청소년 대상 직업 체험 프로그램
중구	너나들이	한부모 가족의 자조모임
	가족친화독서아카데미	창의적이고 올바른 독서 태도에 대한 부모 역할 교육
	건강을 키우는 한걸음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중랑구	남는 건 사진 뿐	사진 촬영 기술 교육 및 가족 단위 출사 프로그램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교류 분석 이론을 기초로 한 부모 역량 강화 교육
	가족사랑의 날 '중랑가족영화제'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고대교우회와 함께하는 일일병원	전문 의료진의 의료 봉사(연 2회)
위풍당당 한(欄) 가족	한부모 가족 대상 부모 교육 및 가족 문화 프로그램	

전문가 제언

100세 시대,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최규련 수원대학교 교수

서울시민들이 가족관계 증진과 부부간 소통을 위해 어떤 기관을 찾을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달 체계 간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데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간 소통과 부부 관계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는 전달 체계 중심의 역할 분담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거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른 전달 체계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공유하면서 전달 체계 각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100세 시대는 노년기에 이르러 준비하는 과제가 아니라,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시기적 과제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주기를 통합하여 각각의 주기별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길어진 노년을,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인식하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00세 시대를 위한 가정생활 설계 프로그램, 가족생활 교육,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삶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까지는 부부간의 관계보다는 부모-자녀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현재의 가족 관계 구조 속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결국 부부가 자녀 없이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의미임을 포착해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TALK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가족과 함께한다면, 그 시간이 곧 기쁨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네이버 지식인에 '왜 사냐는 물음에 간략하게 답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냥 엄마가 낳았기 때문', '평소에 생각해두었는데 까먹었다', '왜 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산다', '살지 않고 죽기는 뭐하니까',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나온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서' 등의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답변들 중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은 '왜 사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산다'였다.

행복한 일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전략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지금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왜 사는가를 물어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행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행복한 일을 가족과 함께한다면, 그 시간이 곧 기쁨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매주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가장 쉬운 것은 함께 '식사'하는 일. 더 나아가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생활에 가족의 기쁨과 추억을 덧입히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가족 여가가 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일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이며, 커갈수록 스스로의 자립을 키우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식사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식빵에 땅콩버터와 딸기 잼을 바른 샌드위치나 카레라이스 하나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일만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즐겁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가벼운 운동 효과가 있는 일을 실

천해보자. 운동 아이템은 가족 간에 의논하여 선정한다. 만약 간단한 체조라면 매일 하는 것으로 정해도 좋다. 그러나 농구, 야구, 자전거 타기, 집 주변 산책하기, 산에 다녀오기 등 한 달에 한 번은 신체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일을 하길 추천한다. 움직임이 적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활동이 아주 훌륭한 기분 전환이 되고, 신체 활동을 추가하는 적극적 참여형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일을 매달 실천할 수 있다면 가족 여가를 넘어서 특별한 '가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가족 모두가 소망하는 장기 플랜 계획을 세우고 '가족만의 꿈의 여행'일정을 짜고 실천하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싶어 하는 딸이 있었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매년 생각만 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고 물었더니 만 원 정도는 떼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만 원씩 제주도 여행을 위해 저축하자고 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 2년이면 96만 원이 된다. 그녀가 생각하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숙박비와 항공료까지 계산해보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오늘부터 하나씩 바로 실천하자

이처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일상적인 것, 한 달에 한 번,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TV 보기, 영화 보기처럼 혼자 해도 무방한 것보다는 함께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여가 활동을 고민하고, 온 가족의 소망을 하나씩 장기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단기 여가 계획을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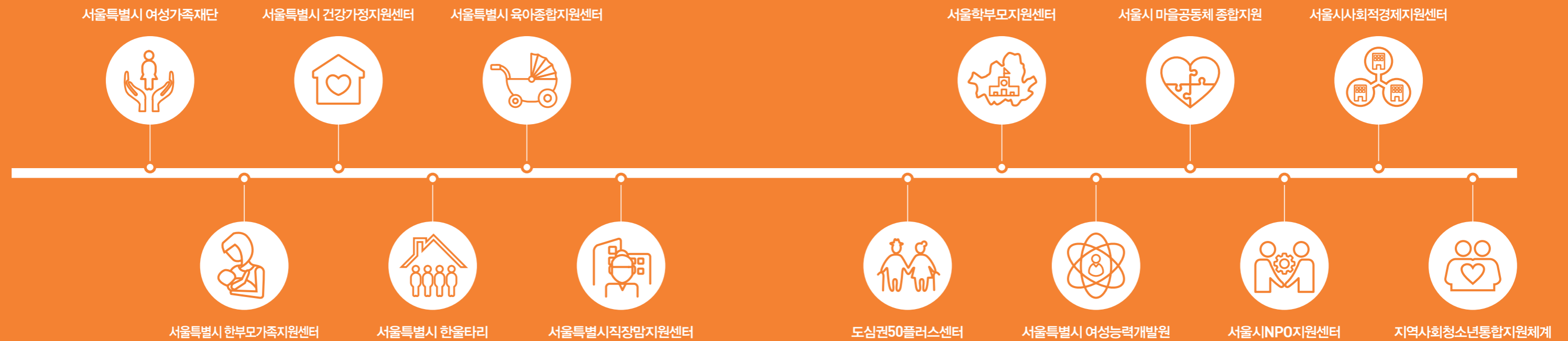
가족 여가는 나의 즐거움과 가족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과 행복을 선물로 준다.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부터 둘러본다면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많은 이용 자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가에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정시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을 시행하며, 직장 문화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바꿔가고 있다. 가족과 뭘 할지 고민된다면, 서울시 25개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가족 사랑의 날'을 실천하여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부터 실천하자. 하나씩 하나씩!



가족 정책 네트워크

서울시 지역

유관 기관 정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2002년부터 다양한 서울 여성 가족의 변화상에 맞게 여성 일자리, 일·가족 양립, 가족, 보육, 안전, 사회 통합, 성 주류화 등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여러 가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여러 여성 단체와 커뮤니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하게 성장된 모임이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크게 정책 연구, 교육, 네트워킹 세 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여성 NGO의 사무·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여성이 주체 의식은 물론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홈페이지	www.seoulwomen.or.kr
연락처	Tel. 02-810-5000 / Fax. 02-810-5100
기타 정보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위탁으로 여성 취업·창업 기관들과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한 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과 두리모(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 부모 가족생활의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확대,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 개발, 인식 개선 사업,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수행 기관 지원 등 가족 단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서울시 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홈페이지	seoulhanbumo.or.kr
연락처	Tel. 02-861-3020 / Fax. 070-7469-3024
기타 정보	서울 거주 한 부모 미혼모들을 위한 종합 정보를 제공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가족 정책 수행의 주요 전달 체계로, 서울 지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 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모든 가족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족 자원 나눔 서비스를 통한 돌봄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주소	서울시 중구 소파로 4길 6		
홈페이지	family.seoul.go.kr		
연락처	Tel. 1577-9337		
기타 정보	센터명	주소	연락처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강동청소년회관 2층	02-471-081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4층	02-987-2567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3층	02-883-9383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02-458-0622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09 구로3동주민센터 4층	02-830-0450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02-803-7747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생활과학대학 403호	02-957-0760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층	02-599-3301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02-3142-5482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02-322-7595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2층	02-576-2852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02-3395-9447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6길 57번 은행정어린이집 4층	02-2065-3400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02-2678-2193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용산여성문화센터	02-797-9184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56 성지빌딩 3층	02-376-3761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02-764-3524
	중구	서울시 중구 동호로 8다길 22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	02-2279-3891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길 369	02-435-4142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 맘의 고충을 덜기 위한 종합 지원, 직장 맘의 파워 업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홈페이지	www.workingmom.or.kr
연락처	Tel. 02-332-7171 / Fax. 02-335-1070

도심권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신 시니어를 위한 교육, 일자리, 정보, 문화 관련 복합 정보를 제공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센터이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북변동5) 8동 2층(2016.3까지 공사 및 준비 기간) 임시 이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805호, 806호
홈페이지	www.seoulseoul.or.kr
연락처	Tel. 02-389-8891 / Fax. 02-2038-8896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서울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며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고충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전담기구'이다.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22 창덕여자중학교 내
홈페이지	parents.sen.go.kr
연락처	Tel. 02-318-1196 / Fax. 02-3999-750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 역할을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지 기반 확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전망과 고용 지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및 협력 강화, 여성 일자리 정보 허브/거버넌스 강화가 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홈페이지	womanup.seoulwomen.or.kr
연락처	Tel. 02-827-0130 / Fax. 02-827-013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성 발전 센터	동부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조양시장길 18	02-460-2300	dongbu.seoulwomen.or.kr
	서부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남부순환로371	02-2607-8791-4	seobu.seoulwomen.or.kr
	남부	서울시 금천구 복자관길 13	02-802-0922-3	nambu.seoulwomen.or.kr
	북부	서울시 노원구 학여울길 24	02-972-5506-8	bukbu.seoulwomen.or.kr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중부	서울시 마포구 용강길13(용강동70-2)	02-719-6307-8	jungbu.seoulwomen.or.kr
	종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길23 스타시티빌딩	02-765-1326	www.sbwomen.or.kr
	용산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5	yongsan.seoulwomen.or.kr
	중랑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프라자 3층	02-3409-1947-9	jungnang.seoulwomen.or.kr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6~7층	02-921-2020	www.job2060.or.kr
	강북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3층	02-980-2377-8	www.womanjob.or.kr
	노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8	www.job365.or.kr
	은평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02-389-1976	www.epwoman.or.kr
	서대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해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강서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구로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63	02-867-4456	www.kurowoman.com
	영등포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61(영등포동) 극동빌딩	02-858-4515	www.ywcjob.or.kr
	동작	서울시 동작구시당로299 이수텐빌딩 2-5층	02-525-1121	www.djwoman.or.kr
	관악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75 광장빌딩1-5층	02-886-9523-5	www.kwoman.or.kr
	서초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3선영빌딩 L층	02-6929-0011	seocho.seoulwomen.or.kr
	송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9길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en.or.kr
성동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 신방빌딩 1층	02-3395-1500	sd.seoulwomen.or.kr	
강남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신관1층	02-6929-0002	kangnam.seoulwomen.or.kr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시민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주인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주민 3인' 이상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성장 단계별 맞춤형 주민 지원,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및 주민 네트워크 지원, 대안적 마을사업 모델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녹번동)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연락처	Tel. 02-385-2642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으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NPO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며,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시민들의 공익활동과 NPO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상담·컨설팅, 정보수집·확산은 물론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구축, NPO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행사·교육공간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홈페이지	www.seoulnpocenter.kr
연락처	Tel. 02-734-1109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새롭게 출발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모임,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녹번동)
홈페이지	sehub.net
연락처	Tel. 02-353-355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고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동반자'를,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를, 인터넷중독인 경우 '인터넷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학교밖청소년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 지원합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자 아웃리치 등을 실시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긴급지원도 실시한다. 서울시내에서는 25개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치해 있다.

홈페이지	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1.jsp
연락처	Tel. 1388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23	02-2285-1318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02-3153-5982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44	02-2226-855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2 연희우체국 2층	02-3141-1318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02-6252-1387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3층	02-525-9128
강북구	서울 강북구 4.19길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02-6715-6660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성동청소년수련관 3층	02-2299-1388
강서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57 가길 26 화곡청소년수련관 1층	02-2649-1318	성북구	서울 성북구 정릉로 242 아동청소년센터4층	02-3292-1779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문화복합시설 1층	02-872-1318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02-407-7179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2층	02-2205-2300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번지	02-2646-8341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272 강서수도사업소 민원센터 4층	02-867-1318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10 문래청소년수련관 410호	02-2676-6114
금천구	서울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금천청소년수련관 2층	02-803-1873	용산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가길2 1층	02-706-1318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02-3391-0079	은평구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4길 16	02-384-1318
도봉구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청소년수련관 1층	02-950-9640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가길 13	02-762-1318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산실동복지지원센터 2층	02-2236-1318	중랑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17 중랑청소년수련관 3층	02-496-1895
동작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슬기동 2층	02-834-1355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의 가족은 변화중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family.seoul.go.kr 강기정(백석대학교 교수) 송혜림(울산대학교 교수)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최규련(수원대학교 교수)
펴낸 곳	서울특별시
발행	2015년 12월
편집·디자인·인쇄	(주)이팝 www.eepop.co.kr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출판일련번호	여성 911-0008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5621-702-2